

YONSEI AMP

ADVANCED MANAGEMENT PROGRAM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009. 신년호 vol.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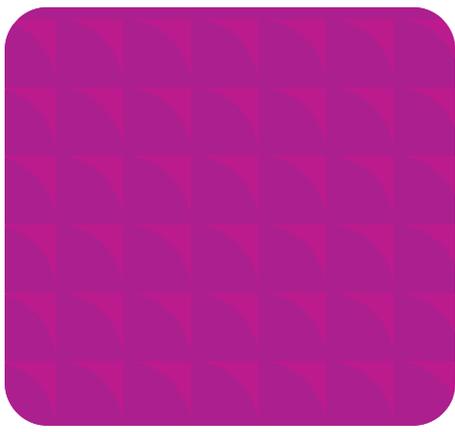
네 꿈을 펼쳐라

D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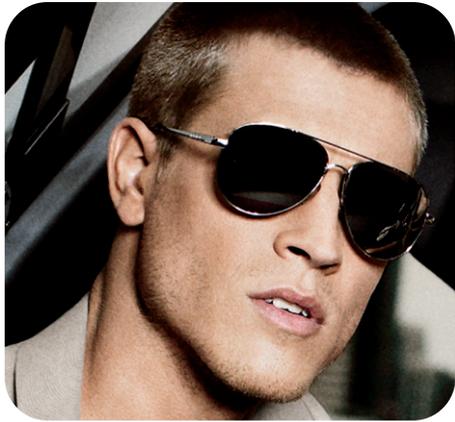
Love your **D**ream
Keep your **H**ope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목동 **DH** DREAM & HOPE 대 학 학 원 | 교육상담 02)2651-5151



SEEHO  VISION



시호비전 전국매장 안내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 02-310-1935 이마트 기양점 02-3662-0890 상봉점 02-496-5015 신월점 02-2602-9001 청동점 02-993-9001 홈플러스 강동점 02-484-9002 강서점 02-2658-8700 영등포점 02-2675-5923 롯데마트 구로점 02-2635-1996 경기 이마트 부천점 032-667-9001 분당점 031-714-9001 산본점 031-392-9010 수지점 031-276-3745 시화점 031-498-8096 홈플러스 금천점 02-890-8056 부천여월점 032-678-6751 상동점 032-328-9770 시흥점 031-319-0732 안산점 031-486-3740 영통점 031-206-9795 의정부 031-850-8237 작전점 032-540-8040 파주문산 031-953-6677 평촌점 031-383-9100 풍무점 031-981-5002 롯데마트 부평점 032-508-3991 삼산점 032-525-3330 수지점 031-897-8145 안성점 031-653-0444 영종도 032-752-3991 와스타디움점 031-483-7750 화성점 031-205-0255 킷스클럽 아탑점 031-702-6007 영남 이마트 김천점 054-431-9100 해운대점 051-747-0302 홈플러스 김안점 051-638-8861 거제점 055-680-0900 김해점 055-320-8204 구미점 054-462-0408 동래점 051-553-6860 대구남구점 053-655-2060 성서점 053-521-0697 센텀점 051-743-5980 아시아드점 051-507-0512 영주점 054-636-0459 칠곡점 053-607-8060 롯데마트 동래점 051-554-5536 진장점 052-288-7447 창원점 055-277-9255 메가마트 남천점 1층 051-611-3030 울산점 052-287-9060 중부/호남 이마트 원주점 033-733-9001 강릉점 033-651-1301 전주점 063-272-9011 청주점 043-295-9100 홈플러스 논산점 041-733-7604 조치원점 041-864-8222 천안점 041-555-2046 가경점 043-237-2010 오창점 043-218-0121 롯데마트 군산점 063-463-0081 전주점 063-224-3222

What's New & Different?



SIGN in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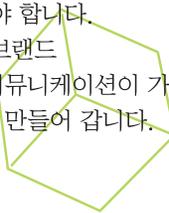
도시미학의 열린세계상을 디자인합니다

새롭게 더 새롭게 - New

기존의 사인물을 답습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세상과 고객, 기업, 그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새로운 디자인과 방향, 소재의 개발 등
시스테크는 언제나 새로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독특하게, 차별화하여 - Different

타사의 사인, 혹은 타 브랜드의 사인과는 달라야 합니다.
독특한 사인물, 차별화 된 사인물만이 기업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더욱 효과가 높으며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에 맞는 새로운 전략으로 차별화된 사인을 만들어 갑니다.



최고경영자과정 60기 박성진 대표이사

SISTECH

sign in space

(주) 시스테크비즈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40-21 블루나인 B/D B동 19층 1909호
B-1909 Blue9 B/D, 240-21 Yumchang-dong, Gangseo-gu, Seoul 157-861, Korea
T.+82 2 2636 2100 F.+82 2 2636 3199 URL.www.sistechbz.co.kr

최고의 CEO, 최고의 Partner – 「이트너스」

수 많은 선택과 경쟁 속에서 1등 기업을 만들어가는 CEO,
그이 결연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함께하기에 언제 어디서나 든든합니다.
시대를 이끌어가는 CEO의 성공 파트너 이트너스, 지나온 길보다 앞으로 헤쳐 갈 미래를 생각하는 CEO를 위해
이제, 차별화 된 비즈니스 서비스로 미소와 여유까지 찾아드리겠습니다.



국내의 선진 기업들은 이미 선택했습니다.

- Fortune 선정 100대 기업의 60% 이상이 아웃소싱 도입
- 일본내 기업 80% 이상이 파견근로 활용
- 아웃소싱 세계시장 매년 10% 이상 성장추세

국내에서 이미 인정받은 비즈니스 서비스 전문기업, 이트너스

- 삼성전자/두산/금호아시아나 인사·총무부문 아웃소싱
- 국내유수기업 100여개사 급여대행
- 인사, 총무부문 190여개사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

이트너스의 서비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릅니다.

- 아웃소싱도입기획, 설계컨설팅부터 업무대행까지 원스톱서비스
- 고객사 특성에 맞는 맞춤 서비스
- 대기업을 통해 쌓아온 선진기업 수행

Total Business Service 전문기업

이트너스 | 주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20층 / Tel. 02-3439-5000 Fax. 02-3439-5098

ETNERS Service분야

경영지원부문 아웃소싱(인사·총무부문) / 급여대행 / 인재파견 / 채용대행 / 사무환경 구축 / 자산관리 외

연세 AMP 동문 명부 제작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세 AMP 총동창회에서 기축년 새해를 맞아
2007년 발행 이후 변경된 동문 현황을 새롭게 파악한
2009 동문 명부를 새롭게 제작, 발간하고자 합니다.
바쁘고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동창회를 위한 사업임을 헤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문 상호 간 정보를 교류하고, 우리 동문을 하나로 모으는데
일조하게 될 이번 명부 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명부 제작은 사무국에서 제작을 진행하기에는
인적·기술적인 부분에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기에
아래와 같이 별도의 편집실·광고국을 구성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동문 주소록 파악, 사진요청, 광고 청탁 등의 내용으로
명부 편집실(퀴토)에서 연락할 시
부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주소 수정 및 광고 게재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동창회 사무국(02-702-7554)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문 명부 제작 개요〉

- * 사업 명 : 2009 동문 명부 제작
- * 판 형 : 4X6 배판
- * 발 행 일 : 2009년 5월 예정
- * 제작 업체 : 퀴토 (대표 윤형식)
- * 편집실, 광고국 : Tel 02-2264-2477 <담당자 : 김형미>
- * 요청 사항 : 회사 및 자택 주소, 연락처 등 / 최근 반명함 사진



Intro 廬象

봄 가시내

시려운 기운
누리를 싸고돌아도
회초리로 남은 가지
잎 몽울, 꽃 몽울, 옹금 물고
배시시 웃고 있네요
시새움 하는 눈송이
가지마다 걸터앉아도
낭창 낭창이며
꽃으로
하얀 꽃으로 보라, 하네요
그 고운 치맛자락 스치는 소리
봄 가시내 오는 소리
듣고 있네요.

하늘 땅 그리고 나

하늘은
나를 지으시고
땅은 나를 기르셨네
이 몸뚱이
인연(因緣) 다 하고 나면
내 영혼은
고향 찾아
하늘로 되돌아 갈게고
내 영혼 살던 집
이 몸뚱어리는
땅으로 되돌아 갈 터이니
고운 흙이 되고
물이 되고 불이 되어
바람결에 흩어지리라.



詩人 廬象 辛永學

46기, 문화이사
(사)세계문인협회 부이사장



18



24



28



36

YONSEI AMP

2009. 신년호 vol.29

발행인 손영식 편집인 박인서 발행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50-1 용현빌딩 406호 사무국 Tel. 02)702-7554, Fax. 02)702-5011
 기획·기사 김은주 편집·제작 (주)티앤아이미디어 02-785-5346 인쇄 상림문화(주) 031-948-5600

Section 1. AMP News

- 18 Special News 1 제14회 연세최고경영인의 밤
- 24 Special News 2 연세대학교 총장배 골프대회
- 28 Special News 3 2008 연세 AMP 가족 등산 축제
- 30 Association News 2008 임시총회 및 추계 세미나
- 32 Seminar 1 CEO가 알아야 할 뽀(fun)한 경영경제학
- 34 Executive Commission 연세 AMP 총동창회장 이·취임식 및 제9대 임원 위촉식
- 36 Seminar 2 2009 신년하례회 및 '김한중 총장 초청' 춘계 세미나
- 38 Alma Mater News 모교 소식

Section 2. On the Cover

- 40 Theme Story 1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평범하고 특별한 성공 비법
- 44 Interview 1 김한중 연세대학교 총장
- 46 Interview 2 박상용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장·경영전문대학원장
- 48 Theme Story 2 개인 브랜드(Personal Brand) 시대, 나를 차별화해라
- 52 Interview 3 62기 임각균 동문·이트너스(주) 대표이사
- 54 Book review 조화와 화합을 이끌어 내는 인간관계 안내서



Section 3. Trend

- 56 **Trend Report** 새로운 부동산 제도 꼼꼼 가이드, 제도를 알면 길이 보인다
- 58 **Healthy Life** 행복으로 안내하는 내 마음의 비밀 지도
- 62 **Well-Being** 활력을 충전하는 체질별 맞춤 보양식
- 64 **Leisure** 사진은 몸과 마음의 천연 비타민
- 66 **Culture** 사랑의 계절, 샴페인 한 잔 어떠세요?
- 68 **Column** 명품 인생을 만드는 투자의 법칙
- 70 **Travel 1** 백제의 꿈과 한이 서린 백마강
- 74 **Travel 2** 광활한 대륙에서 사람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다
- 76 **Winning Habit 1** 성공을 부르는 언어, 긍정의 주문을 외워라
- 78 **Winning Habit 2** 다이어리, 성공을 만드는 현명한 지혜

Section 4. AMP People

- 80 **Staff Greetings** 박인서 사무총장의 신년인사
- 82 **Alumni Movement 1** 65기, 66기 동정 및 주소록
- 84 **Alumni Movement 2** 동문 동정
- 88 **Notice Board** 동문 게시판

- YONSEI AMP는 연세대학교 AMP 총동창회에서 발행하며, 동문들에게 무료로 발송되는 잡지입니다.
- 본지에 실린 기사·사진 등은 무단 복사·전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문 화합의 매개체, 연세 AMP 동창 회보 제29호를 발행하며!

“2009년 기축년(己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황금 소의 해에 걸맞게 풍요롭고 부지런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연세 AMP 총동창회 동문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연세 AMP 동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겨울 추위보다도 더 혹독한 경제 한파가 밝은 새해를 맞은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라는 각오도 무기력하게 느껴질 만큼 위기와 침체라는 말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경제 상황을 대변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세’ 라는 이름으로 만난 우리 동문은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연세인’ 이라는 무한한 자부심을 버팀목 삼아 이 나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모교의 이름을 걸고 최선을 다해 우리 연세 AMP 동문의 저력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연세 AMP 총동창회는 임원진을 필두로 올 한 해도 여러분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연세 가족’ 으로서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일환으로 각종 행사, 회의, 동문 근황, 동문 기고, 학교 소식 등을 엮어 『연세 AMP 동창회보』 제29호를 발행하였습니다. 동문 교류의 장으로, 우리 동창회의 명맥을 잇는 품격 있고 알찬 소식지로 꾸며질 수 있도록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한중 총장님과 박상용 원장님, 그 외 29호의 발행을 위해 힘써 주신 여러 동문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29호가 된 동창 회보는 우리의 기록으로서, 역사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회보 발행을 통해 소중한 기록을 이어갈 수 있도록 AMP 총동창회는 모든 노력과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동문 여러분 또한 AMP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끊임 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축년 연세 AMP 총동창회 동문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3월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AMP 총동창회 회장 손 영 식



나날이 발전하는 AMP 총동창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연세 AMP 총동창회 손영식 회장님과 동문 여러분,
기축년(己丑年) 새해를 맞이하시는 연세 가족 여러분께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연세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정기 연고전에서 압승해 전 연세인이 승리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SCI 논문 게재 실적은 세계 9,000개 대학 중 96위로 100위 안에 진입했습니다. '더 타임스'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평가에서도 국내 사립대학 중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1년간 모금 실적은 681억 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2008년은 연세가 "the First and the Best"로서의 위상과 자존심을 회복한 해였습니다. 이런 성취는 학교 사랑이 남다른 연세 AMP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모교를 향한 사랑과 참여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연세 가족 여러분,

그러나 연세는 국내 대학끼리 우물 안 개구리식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표는 한국 사회와 세계를 섬기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교를 통해 세계 명문대학으로 새롭게 도약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그 첫 삽을 뜨는 기공식이 있었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경제 위기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려움을 겪으실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꺾이지 않는 힘을 되살려 온 연세인답게 고난을 지혜롭게 이겨냅니다. 연세의 124년 역사를 돌아보면, 연세는 시련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어느 대학보다도 어려운 고난을 헤치며, 겨레의 자랑스러운 인류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해 온 연세였습니다. 그러한 창립 정신과 선학들의 정신이 서려 있는 곳이기, 오늘의 우리 역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실천할 것입니다. 변함없이 이 민족과 이 사회, 이 세계의 자랑이며 햇불임을 각인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다가올 도전과 난제 속에서 저는 연세가 함께 지향해야 할 비전과 전략, 그리고 실천 과제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룩한 성과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 사회에 희망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연세가 감당해야 하는 소임일 것입니다.

이번에 발행된 연세 AMP 제29호 '동창 회보'는 동문 여러분께 특별한 소식지가 될 것입니다. 제29호 회보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연세 AMP의 역사를 새롭게 일궈나가는 손영식 총동창회장님과 임원 여러분, 그리고 회보 발행에 힘써 주신 동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 대학교 AMP 총동창회가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3월
연세대학교 총장 김 한 중



최고경영자과정 동창 회보 발간을 축하합니다

존경하는 최고경영자과정 동문 여러분,
새해 첫 동창 회보 발간을 축하합니다.

연세에서 오랫동안 봉직하셨던 정현중 시인은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고 읊었습니다만, 동문들에게 있어서는 동창회야말로 바로 ‘섬’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은 비록 멀리 있더라도 언제나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 말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동창 회보는 그리운 ‘섬’에서 보내오는 반가운 편지나 다름없겠습니다. 이번 동창 회보도 동문 여러분이 함께 공부하고 여행했던 동료들, 사회 각계에서 열심히 활동 중인 선후배들의 귀한 소식을 가득 담고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렇듯 소중한 의미를 지닌 동창 회보를 알차고 재밌게 제작하느라 애쓰신 손영식 총동창회장님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동문 여러분, 저는 올해 2월부터 경영대학과 경영전문대학원을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오랜 전통 위에서 탁월한 경영학 교육 및 연구 업적을 쌓아온 우리 연세 경영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세 경영은 작년 말 세계 최고 권위의 경영학 교육 인증기관인 AACSB의 인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우월성을 인정받아 모범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경영대학 신축 건물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 연세 경영의 새로운 전성기가 오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연세 경영의 성장과 발전은 최고경영자과정 동문 여러분의 성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연세 경영의 만행으로서, 연세 경영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라는 믿음으로 보여주셨던 사랑과 헌신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동문 여러분, 올해가 지나면 국내외 경제 상황이 다시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여러분 모두 더욱 힘차고 슬기롭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장을 선도하시기 바랍니다. 연세와 동창회도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3월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원장 박 상 용

謹賀新年

기축년(己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동창회에 보내주신 동문님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연세라는 이름으로 한가족이 된 66개 기수 3,800여 연세 동문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일생의 계획은 젊은 시절에 달렸고,
일 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달렸다는 공자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우리 연세 최고경영인들께서도
미래로의 발전을 위한 올해의 힘찬 계획을 세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계획들을 순조롭게 이루어
동문님들의 가치 있는 삶에 더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YONSEI, the First & the Best’ 라는 모교의 비전과 함께
〈연세 AMP 총동창회〉는
동문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화합의 공동체로서
우리나라 최고의 동창회가 되기 위해
임원진 모두 하나 되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마음 한뜻으로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끊임없는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동창회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의 성원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가내 웃음과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세 AMP 총동창회 임원진 일동



Section
1

AMP News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연세최고경영대상' 시상식이 제14회를 맞아, 2008년 12월 5일 여의도 63 시티에서 개최되었다.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주요 기업은 이날 연세 AMP란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 자리를 빛냈다.

Special News 1	18	제14회 연세최고경영인의 밤
Special News 2	24	연세대학교 총장배 골프대회
Special News 3	28	2008 연세 AMP 가족 등산 축제
Association News	30	2008 임시총회 및 추계 세미나
Seminar 1	32	CEO가 알아야 할 뽀(fun)한 경영경제학
Executive Commission	34	연세 AMP 총동창회장 이·취임식 및 제9대 임원 위촉식
Seminar 2	36	2009 신년하례회 및 '김한중 총장 초청' 춘계 세미나
Alma Mater News	38	모교 소식

AMP 화합의 장

제14회 연세최고경영인의 밤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연세최고경영대상' 시상식이 제14회를 맞아, 2008년 12월 5일 여의도 63시티에서 개최되었다.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주요 기업은 이날 연세 AMP란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 자리를 빛냈다.





2



3



4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연세최고경영대상 시상식이 제 14회를 맞은 가운데 ‘연세최고경영인의 밤’ 행사가 ‘YONSEI, the First & the Best’ 라는 연세 슬로건 아래 지난 2008년 12월 5일 여의도 63시티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동문들의 관심과 성원이 깊어지는 가운데 48기 홍순원 동문(주)한스컴 회장)의 찬조로 서울의 주요 지역 총 14개 곳에서 FULL COLOR LED 전광판에 우리 연세최고경영인의 밤 홍보 동영상이 방영되었고, 이에 힘입어 연세 동문과 가족들이 손에 손을 잡고 넓은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행사는 원제철 사무총장의 총괄 지휘 아래 진행되었다. 1, 2부는 김기만 KBS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예년보다 더욱 깔끔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행사는 서중석 행정대외 부총장과 박영렬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등 학교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전용열 65기 회장을 필두로 손영식 총동창회장, 김승제 명예회장, 김용운 상임고문, 이정익 상임고문, 김동주 상임고문, 안종열 고문, 김태옥 수석부회장(등산회장), 김영택 수석부회장(골프회장)등 회장단이 기수 입장을 하며 그 막을 올렸다.

1. 최고경영인의 밤 전체 풍경 2. 최고경영대상 수상자들의 기념 촬영 3. 최고경영대상 수상자 홍상(좌로부터 김태옥, 홍순원, 권병국 수상자) 4. 국기에 대한 경례



5



6



7



8



9

손영식 총동창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행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아낌없이 협찬해 주신 동문께 감사드립니다.”며 “이 자리에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 매우 감격스럽고 소중한 인연으로 느껴진다. 오늘은 희망찬 새해를 위해 모두 즐겁게 즐기며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중석 행정대의 부총장은 축사를 통해 “연세는 한국 최초의 대학으로 항상 변화를 선도하는 최고의 대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앞선 연세, 최고의 대학’으로 뻗어나가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우리 모교의 자랑인 연세 AMP 동문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하며 오늘 최고경영대상 수상자와 공로상 수상자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고 말했다.

박영렬 부원장 역시 “오늘을 위해 애써 주신 손영식 회장님과 임원진께 깊이 감사드리며 동문 모두가 단결하고 화합을 이루는 의미 있는 만남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 해 동안 ‘헌신적인 봉사’라는 말로는 모자랄 만큼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동창회 활동에 앞장선 동문에 대한 공로상 시상이 있었다. 공로상은 46기 성구경 재무이사, 48기 이경하 상임부회장, 51기 황진호 감사, 51기 박성훈 체육이사, 52기 박제훈 상임부회장, 60기 박성진 조직이사, 64기 송윤택 수석부회장이 수상했다. 또한 항상 동창회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교학부 안일봉 부장에게 특별공로상 시상이 있었다.

행사는 곧 이은 ‘제14회 연세최고경영대상 시상식’에서 그 절정을 이뤘다. 김승제 명예회장의 심사보

- 5. 사무총장 원제철
- 6. 발전기금 전달
- 7. 안일봉 교학부 부장 공로상 수상
- 8. 공로상 수상자 기념촬영
- 9.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기만



10



11

고에 의거, 동창회가 추구하는 건전한 기업 경영 철학 실천·경영 실적·사회 봉사활동·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를 엄정하게 심사한 결과, 제조부문에 25기 김태옥 시호그룹 회장, 서비스 부문에 48기 홍순원 (주)한스컴 회장, 건설 부문에 64기 권병국 성부그룹 회장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자들에게는 특별 제작한 흉상이 부상으로 전달되었다. 뒤이은 순서에서 손영식 총동창회장은 박영렬 부원장에게 경영전문대학원 발전기금 증서(일금 삼천만 원)를 전달하였다.

시상식으로 한껏 고조된 행사장 분위기는 김규형의 모듬북 연주로 이어졌다. 신선한 타악 연주로 시작된 2부 행사는 퓨전 국악 연주팀 'Kola'에 의해 그 흥이 배가 되었고 비보이 팀인 '갬블러크루'의 화려하고 박력 있는 무대와 트로트 가수 '강민주'의 라이브, 소프라노 '김희정'의 순서로 이어지며 동문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2부의 행사의 마무리는 중년 여성들의 로망인 '박강성'의 라이브 공연이었다. 그의 공연은 풍부한 성량과 기교로 무대를 가득 메웠다.

이날 경품 당첨의 행운은 39기 이옥규 동문에게, 참석 기수 상은 26기와 64기에 돌아갔다. 다채롭게 진행된 동문 한마당과 푸짐한 경품 추첨이 행사의 재미를 더한 가운데 연세 AMP 동문은 한마음으로 2008년 한 해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12



13



14



15

- 10. 트로트 가수 강민주
- 11. 소프라노 김희정
- 12. 김규형의 모듬북 연주
- 13. 역동적인 비보이 '갬블러 크루'
- 14. 가수 박강성의 열창
- 15. Kola의 현악&국악

제조부문 연세최고경영대상



시호그룹 회장 김 태 옥
1988년 AMP 25기 수료

서비스부문 연세최고경영대상



(주)한스컴 회장 홍 순 원
2000년도 AMP 48기 수료

주요경력

- 1989년 9월 (사)대한안경사협회 제9대, 12대(1995년) 회장
- 1989년 9월 (주)시호터미널 회장(현)
- 1991년 3월 대구산업정보대학 교수
- 1994년 7월 (주)시호비전 회장(현)
- 1995년 9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제7기)
- 1996년 3월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 1996년 8월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 2001년 3월 초당대학교 객원교수(현)
- 2002년 5월 (주)시호미디어 '옵티뉴스' 회장(현)
- 2003년 2월 한국행정학회 운영이사
- 2006년 3월 서울대학교 21대 총동문회 이사(현)
- 2007년 8월 (주)시호엔터테인먼트 회장(현)
- 2008년 9월 세종대학교 경영대학원 AGMP 교수부장(현)

회사연혁

- 1980년 11월 올림피아 비전 설립
- 1989년 9월 (주)시호터미널 설립
- 1994년 4월 (주)시호비전 법인 설립
- 1997년 5월 인체공학안전연구소 설립
- 1998년 8월 안양 재생산공장 설립
- 2001년 2월 프랜차이즈 사업부 신설, 안경클리닉 그룹으로 재도약
- 2001년 6월 초당대학교 안경광학과 산학협력 체결
- 2002년 2월 공업진흥청 Q마크 획득
- 2002년 3월 (주)시호미디어 '옵티뉴스' 설립
- 2003년 10월 비엔이 설립
- 2004년 1월 디즈니 국내 라이선스 획득
- 2007년 8월 시호비전으로 상호 및 CI 통합변경
- 2007년 10월 (주)시호엔터테인먼트 법인 설립
- 2008년 8월 시호그룹 총 18개 법인 국내외 사업장 69개

수상경력

- 2005년 5월 엘리트 이코노미스트상 수상(해럴드 경제)
- 2006년 11월 한국언론인연합회 선정 2006년 최고브랜드 대상 수상
- 2008년 7월 최고 경영대상 수상(세종대학교 총장)

주요경력

- 1985년 옥외광고대행사 한신기획 대표(현)
- 1996년 종합광고대행사 (주)한스컴 대표이사(현)
- 2002년 사단법인 한국전광방송협회 수석부회장(현)
- 2002년 사단법인 한국광고사업협회 부회장(전)
- 2002년 사단법인 한국광고사업협회 법제위원장(전)
- 2002년 사단법인 한국광고사업협회 KOSIGN위원장(전)
- 2003년 사단법인 한국광고단체연합회 광고발전위원장(전)
- 2003년 사단법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이사(전)
- 2004년 사단법인 한국광고단체연합회 이사(전)
- 2005년 대한민국 광고대상(한국광고단체연합회) 집행위원(전)
- 2008년 옥외광고대행사 (주)한스원컴 대표이사(현)

회사연혁

- 1985년 옥외광고대행사 한신기획 설립
- 1985년 한국아쿠르트 등 광고주영입 개시
- 1986년 광고제작사 한신애드 설립
- 1996년 종합광고대행사 (주)한스컴 설립
- 2001년 서울시청 앞 풀칼라 LED 전광판 설치
- 2002년 서울시청 앞 풀칼라 LED 전광판 2002월드컵 생중계
- 2008년 옥외광고대행사 (주)한스원컴 설립
- 2008년 현재 전국에 각종 옥외광고매체 보유 운영 중이며, 한국아쿠르트, CJ그룹(CJ제일제당, CJ홈쇼핑 등) 외 20여개 광고주 영입

수상경력

- 2003년 대통령표창
- 2004년 사단법인 한국광고사업협회 공로상
- 2007년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AMP 총동창회 공로상
- 2007년 사단법인 한국전광방송협회 공로상
- 2008년 제63회 경찰의 날 - 경찰청장 감사장

건설부문 연세최고경영대상



성부그룹 회장 권병국
2007년 AMP 64기 수료

주요경력

- 현 동탄 호텔쉐르빌 회장
- 현 양평쉐르빌온천관광호텔 회장
- 현 쉐르빌파라다이스연수원 회장
- 현 경기도시개발(주) 회장
- 현 쉐르빌 CPI산업개발(주) 회장
- 현 경기도 아마추어복싱연맹 회장
- 현 경기도 체육회 감사

회사연혁

- 2000년 1월설립 CPI종합건설(주)
- 2006년 5월까지
- 2000년 5월설립 동탄 호텔쉐르빌
- 2002년 12월설립 양평쉐르빌온천관광호텔
- 2005년 7월설립 쉐르빌파라다이스연수원
- 2006년 9월설립 경기도시개발(주)
- 2006년 11월설립 쉐르빌CPI산업개발(주)
- 2008년 8월설립 성부그룹

수상경력

- 2006년 경기도체육회장 공로상
- 2006년 대한아마추어 복싱 연맹회장 공로상
- 2006년 고려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경영상
- 2007년 경기도체육회장 표창

공로상



성구경 (46기)
재무이사
(주)성보크리미 회장



이경하 (48기)
상임부회장
대원유통물산(주) 대표이사



황진호 (51기)
감사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성훈 (51기)
체육이사
(주)더골프 대표이사



박제훈 (52기)
상임부회장
예일건설(주) 회장



박성진 (60기)
조직이사
(주)시스템크비즈 대표이사



송윤택 (64기)
수석부회장
(주)윤성텍스타일 대표이사



안일봉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학부 부장
특별공로상 수상자



필드 위에 펼쳐진 화합의 장, 연세대학교 총장배 골프대회

우리 AMP 총동창회는 동문들의 건강 증진과 화합을 도모하고, 즐겁고 유익한 동창회를 만들고자 골프회와 등산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 골프회(골프회장 김영택)는 연세 AMP 총동창회 설립 이후 '구연회'라는 명칭의 골프회를 결성, 연 8회 대회 7팀으로 2004년까지 운영하였고 2005년 김영택 현 골프회장

이 취임하면서 그 명칭을 '연세대 AMP 회장단 골프회'로 개칭하여 연 8회 대회 10~12팀을 각 기 회장단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매년 1~2회씩 대회 타이틀을 바꿔가면서 전 동문이 참가하는 골프 잔치를 열고 있다. 2005년 총장배에서는 장학기금 1억 7백만 원을 행사 현장에서 정창영 전 총장에



1. 김영택 골프회장 개회사
2. 손영식 총동창회장 축사
3. 김태욱 등산회장 축사
4. 김승제 명예회장 축사
5. 김동주 고문 축사
6. 김윤희 골프총무국장



게 전달한 바 있으며, 2007년 원장배에서도 약 3천만 원의 장학기금을 전달하였다. ‘연세대 AMP 회장단 골프회’는 2005년 용평비치힐 GC에서 총장배, 2006년 88CC 골프회장배, 2007년 5월 88CC에서 총동창회장배, 2007년 10월 양주CC에서 원장배에 이어 2008년 10월 BA비스타 GC에서 총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지난해 10월 열린 총장배 골프대회는 김한중 총장, 김태현 원장, 박영렬 부원장, 연강흠 교수, 김영찬 교수, 안일봉 교학부 부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총 40팀 200여 명의 우리 동문은 때론 과감하게 때론 부드럽게 샷을 날리며 가을의

정취를 벗 삼아 그간 지친 심신을 모두 털어 버리는 듯했다.

김영택 골프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하루만이라도 힘든 일과 고민을 훌훌 털어버리는 모임이 되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한다.”고 말했고 손영식 총동창회장 역시 “모든 시련 다 잊고 스트레스를 풀어 몸과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태현 원장은 축사를 통해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는 즐거운 모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동문 모두의 건강을 기원했다.



1. 집행부 2. 김한중 총장 축사 3. 모교발전기금 1억 원 전달

김승제 명예회장, 이정익 상임고문, 김동주 상임고문 역시 좋은 날씨에 파이팅하기를 바라고 우리 동창회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며, 서로 단합된 모습으로 건강을 기원하자는 말을 잊지 않았다. 운동을 마친 후 이어진 2부 행사에서 김한중 총장은 “멋진 샷을 날리는 동문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연세대학교 총장으로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평가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AMP 골프대회도 동문 여러분의 화합과 친교를 위한 의미 있는 모임으로써 영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정익 상임고문은 “총장님께서 늘 연세 AMP 동문과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는 기대감을 전하며 건배제의를 했다. 이번 행사에서 손영식 총동창회장은 김한중 총장에게 연세대학교에 장학금 1억 원을 쾌척했고 김영택 골프회장은 ‘OK 리본’ 판매 수익금과 협찬금을 모아 경영전문대학원 김태현 원장에게 발전기금으로 전달하였다. 매 홀 협찬자의 이름을 건 협찬자 홀을 운영한 이번 대회에서 메달리스트는 남녀 각각 61기 이상경(64타) 동문과 53기 김경남 동문(80타)이 차지했고, 니어리스트는 남녀 각각 42기 이영재 동문(40cm)과 50기 김현숙 동문(7m 10cm), 룡기스트는 남녀 각각



골프를 즐기는 우리동문 행사장 이모저모

60기 김영호 동문(290yd)과 64기 노진이 동문 (210yd), 다보기상은 16기 이경재 동문, 다과상은 64 기 고재희 동문, 다버디상은 50기 박인서 동문과 59 기 김종수 동문이 차지했으며 단체상 우승은 61기가 차지했다.

2008 연세대학교 총장배 골프대회
 2008. 10. 20 (화) 14:00(시작) ~ 18:00(종료) | 연세AMP총동문 골프회 | 연세대학교 경영정보대학, 연세AMP총동문

김영 Hole-in-One Hole

- 출인원 ----- 1,000만원
- ① 童心園반경 70cm 이내-100만원
- ② 童心園반경 140cm 이내-50만원
- ③ 童心園반경 210cm 이내-10만원
- 참가비 ----- 2만원



산에 취하고 국악에 취하다, 2008 연세 AMP 가족 등산 축제

지난해 11월 15일, 2007년에 이어 2008년 ‘연세 AMP 가족 등산 축제’가 손영식 총동창회장, 김태옥 등산회장, 김영택 골프회장 등 20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하신 가운데 성황리 개최되었다.

송운택 수석부회장의 협찬으로 준비된 고어텍스 등산 재킷과 손영식 총동창회장이 준비한 등산 수건, 김태옥 등산 회장의 선글라스, 박삼복 상근부회장의

고주과 안마기, 원제철 사무총장이 준비한 간식 등 십시일반 동문의 협찬으로 준비된 등산 축제는 그야말로 정을 나누는 행사였다.

손에 손을 잡고 모인 동문과 동문 가족은 각자 원하는 코스로 이동하여 가벼운 산행을 하고, 집합지에 다시 모여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 김태옥 등산회장 인사 2. 등산 축제 집행부 3. 박인서 등산총무국장 인사

- 4. 산행길에 오르는 동문 5. 64기 동문 기념촬영 6. 48기 동문 기념촬영
- 7. 원제철 전 사무총장과 김윤희 골프총무국장의 가족
- 8. 퓨전 국악팀 연주 9. 시낭송하는 신영학 문화이사
- 10. 축하 공연을 즐기는 동문

특히 김태옥 등산회장(수석부회장)이 이끄는 시호엔터테인먼트의 퓨전 국악팀 연주는 동문 모두를 한마음으로 어우러지게 할 만큼 멋졌다. 퓨전 국악 연주로 듣는 ‘베사메우초’는 자연의 생생한 운치를 한껏 돋우었고, 46기 신영학 문화이사의 시 낭송은 그 어느 때보다 청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해를 거듭할수록 동문의 참여가 높아지는 가운데 특히, 48기 동문은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해 ‘최다 참석 기수 상’을 받았다.

집행부는 비가 올 것으로 예상해 우비를 준비하는 등 동문을 세심하게 배려했으나,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 가족들과 함께 돌아가는 동문의 발걸음이 한결 가볍고 즐거웠다.

산이 날 에워싸고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발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어느 짙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
 아들 낳고 딸을 낳고
 흙담 안팎에 호박 심고
 들짚레처럼 살아라 한다.
 쑥대밭처럼 살아라 한다.
(이하 생략)



시인 박목월 님의 시 한 구절이 생각나는 그런 하루였다. 앞으로 동문들의 기대와 참여 속에 나날이 발전하고 커가는 등산 축제가 되기를 소망한다.



AMP 발돋움을 준비하다 2008 임시총회 및 추계 세미나





지난 2008년 9월 9일 롯데호텔에서 손영식 총동창회장, 김태현 원장을 비롯한 15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 및 추계 세미나가 개최됐다.

손영식 총동창회장은 “이 자리는 AMP 동문을 위해 준비된 자리인 만큼 동문 여러분께 더없이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창조적인 사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태현 원장 역시 축사를 통해 “AMP 추계 세미나가 동문 여러분께 유익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 세미나가 요동치는 세계 경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미나에 앞서 진행된 임시총회에서는 더욱 원활하고 발전적인 사무국 운영을 위한 위촉식이 있었다. 박삼복 동문이 상근부회장으로 위촉됐고 우리 동창회의 산하조직으로 동문 교류의 큰 축을 담당할 등산회장에는 김태옥 수석부회장이 위촉됐다. 김태옥 등산회장은 “앞으로 등산회가 재밌고 전체 동문이 단합할 수 있는 행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동문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1. 박삼복 상근부회장 위촉 2. 김태옥 등산회장 위촉

CEO가 알아야 할 뻔(fun)한 경영경제학

CEO가 알아야 할 뻔(fun)한 경영경제학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박광량 교수는 세상의 희소성과 인간 행동의 근본 법칙에 기초하여 인간, 시장, 기업 그리고 정부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재미있는 시장 경제학의 논리로 풀었다. 박광량 교수는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듯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며 경제학의 근본 가정은 희소성이라는 가정 아래 근본적인 기업 내부 경영 전략을 세워, 숨어 있는 비용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기업과 사회가 봉착한 문제들을 보다 현실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사고의 전환으로 부딪히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 최고경영자들의 필수 자세임을 강조했다.



박광량 강사 약력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졸업

하버드대 사회관계론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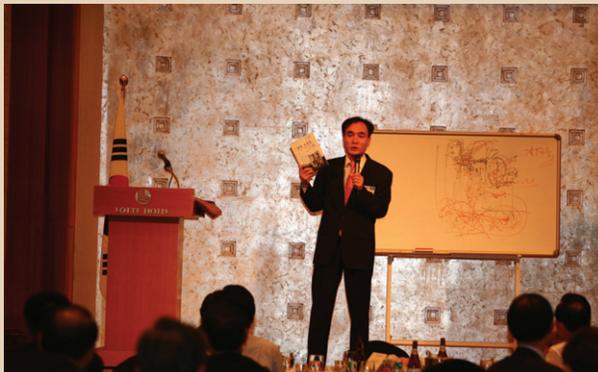
(현)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전) 삼성물산 현대그룹 인사 자문 교수 역임 / 인사조직학회 산업조직심리학회 이사 역임

저서 경영경제학 (경문서적, 2004년)

수상 삼성그룹 우수 강연상 수상 / 전경련 우수 강연상 수상

이메일 ecobook@empal.com



재미있는 시장 경제 : 미신 타파 경영경제학 60Q

1	어떤 사람이 부자(강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빈자(약자)가 되는가?	31	왜 이기적인 사람은 비경제적이고, 완벽한 사람은 비합리적인가?
2	부자(기업)가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무엇인가? (좋은 부자와 나쁜 부자는?)	32	왜 인사는 공정할 수밖에 없으며, 인사 잡음은 필연적이고, 좋은 일인가?
3	왜 빈부 격차는 클수록 좋은가? (나쁜 빈부 격차는?)	33	왜 상위 핵심 요직은 정실인사를 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는 것이 좋은가?
4	왜 자본주의에서는 열심히, 성실히, 정직하게 일하기만 해서는 못 사는가?	34	왜 상사 고과나 다면 평가는 조직을 파괴하는가?
5	왜 부의 창출과 분배는 분리될 수 없고, 동시에 일어나는가?	35	왜 유연한 (자유로운) 노동 시장은 노동자, 비정규직, 특히 실업자에게 좋은가?
6	왜 자유시장 가격 기구에 의한 부의 배분이 가장 정의롭고, 효율적이며 공정한가?	36	왜 동일 노동 - 동일 임금 (일물일가)의 법칙과 베블렌 효과는 오류인가?
7	왜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사람들을 남에게 봉사하도록 하는가?	37	왜 일 나누기(주 5일제), 이윤 공유, 산업 민주주의 등은 노동자에게 불리한가?
8	왜 자본주의에서는 富益富貧益貧이 아니고 돈으로 돈을 벌 수 없는가?	38	투기와 투자, 공해와 공익, 사익과 국익, 밀수와 자유무역, 정경유착과 정경협조는 어떻게 다른가?
9	왜 자유무역-세계화는 제3세계 민중을 돕는가?	39	왜 복지 정부는 국민 복지를 파괴하는가?
10	왜 한국은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계획에도 성장하였는가?	40	왜 경제적 평등과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려는 법적 조치들은 법 앞의 평등을 파괴하는 불평등 법인가?
11	왜 시장경쟁은 약육강식이 아니라 弘益人間 경쟁인가? (市場과 戰場은 어떻게 다른가?)	41	왜 약자 (여성,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등)를 돕기 위한 법과 정책이 오히려 약자를 괴롭히는가?
12	왜 시장 경쟁은 약자와 패자에게도 도움이 되는가?	42	왜 차이는 차별되어야 하는가? (왜 시장 차별은 차별받는 자에게도 좋은가?)
13	왜 천재(엘리트)와 범재(주변인)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가? (살아있으라 누구든 살아있으라!)	43	왜 배가 고프면 배도 더 아픈가?
14	왜 '적당한' 패배자로 사는 것도 좋은 전략인가?	44	왜 똑같이 못살아도 빈부 격차가 더 큰 사회나 동네가 더 좋은가?
15	왜 법적 평등 이외의 경제적 평등, 기회 평등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가?	45	왜 정경 유착, 부정부패가 발생하며 그 근본 대책은 무엇인가?
16	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부의 사회적 환원이 아니라 이윤 극대화인가?	46	정부가 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무엇인가?
17	왜 좋은 제품이 팔리는 것이 아니라, 팔리는 제품이 좋은 제품인가?	47	왜 한국에서는 법이 쉽게 어겨지고 능멸 받는가?
18	왜利潤이 義롭고 義로운 것이 利로운가?	48	왜 개혁과 진보는 어려운가?
19	왜 모든 것은 다 돈으로 계산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돈을 벌거나 행복할 수 있는가?	49	왜 정치적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 경제는 상보적인가?
20	왜 경영자의 능력은 성공 또는 도산 이후에야 비로소 검증되는가?	50	왜 자유 시장 경제 체제가 되어야만 민주주의가 비로소 완성되는가?
21	왜 運七技三의 사업 활동에서 운보다 기가 승패를 결정하는가?	51	왜 한국에서는 좌파와 우파는 서로 비슷한 보수-수구 세력이고 자유파가 진보-개혁 세력인가?
22	왜 기업들은 문어발식 비판권 단각화를 해야만 하는가?	52	왜 시장 가격이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 기구인가?
23	왜 독점 기업이 좋으며 독점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나쁜 독점은?)	53	왜 시장은 완벽하지 못하며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가?
24	왜 노동자도 사장이자 사업가이고 경영자인가?	54	왜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 개입은 반드시 정부 실패를 낳는가?
25	왜 나의 고객은 나의 상사인가? (상사의 명령은 고객의 소리?)	55	왜 공해가 쉽게 발생하며 일단 발생한 공해는 없애기가 어려운가?
26	왜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며 그것이 노동자에게도 좋은가?	56	왜 수익성과 인본성은 서로 비례하는가?
27	왜 권력과 소득, 지식은 늘 같이 갈 수밖에 없는가?	57	왜 효율과 형평은 (또는 무엇이든) 적당한 균형을 취해서는 안 되는가?
28	왜 기업의 최고 권력자는 외부의 고객인가? (왜 고객은 왕인가?)	58	왜 사람들은 때로는 자신에게도 불리한 선택을 하는가?
29	나의 연봉은 어떻게 결정되나?	59	왜 우리는 결코 경제 법칙을 벗어날 수 없으며, 고뇌와 불만은 이어지는가?
30	왜 연봉제는 오히려 팀워크를 증대시키는가? (누가 더 협동적인지를 경쟁)	60	행복의 필요-충분조건은 무엇인가?

※ 출처 : 경영경제학(경문서적, 2004, 朴珪良) (홍익대:019-210-1711, krpark@wow.hongik.ac.kr)

연세 AMP 총동창회장 이 · 취임식 및 제9대 임원위촉식

- 열린 동창회, 참여 동창회를 이루기 위한 발판 마련 다짐





1. 손영식 총동창회장 취임사 2. 손영식 총동창회장 추대패 전달 3. 김승제 명예회장 추대패 전달
4. 이두철 상임고문 추대패 전달 5. 김영택 골프회장 위촉패 전달 6. 황진호 감사 위촉패 전달

지난 2008년 6월 20일, 김태현 원장을 비롯한 학교 내빈과 우리 동문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대 총동창회장 취임식과 제9대 총동창회장 취임식, 임원위촉식이 열렸다. 제9대 신임 총동창회장은 지난해 4월 25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참석 동문 만장일치로 추대되었던 손영식 총동창회장이 취임하였다. 제12회 연세최고경영대상을 받은 바 있는 손영식 총동창회장은 17기를 수료, 현재 (주)조양을 이끌고 있으며 정기총회 시 개정된 회칙에 의거해 2008년 6월 1일부터 2년간 총동창회장의 중책을 수행하게 됐다. 김승제 회장은 전임 회장 이임사를 통해 열정과 의욕을 갖고 총동창회장직을 맡았을 때가 엇그제 같이라며 "지난 3년간 부족한 저를 성원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준 임원단과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를 아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동문들의 힘찬 박수 속에서 김승제 회장은 그간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손영식 제9대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손영식 총동창회장은 "우리 동창회를 지금까지 훌륭하게 이끌어 온 역대 총동창회장과 임원진께 감사드리며 특히 지난 7대와 8대 총동창회장직을 수행한 김승제 회장의 노고와 헌신적인 봉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손영식 총동창회장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은 이치로 선배는 자랑스러운 후배를 격려하며 다독이고, 후배는 선배의 높은 위상을 배우고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2년간 총동창회장으로서 우리 동창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 되어 활기 넘치는 동창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 위촉을 축하하고자 참석한 김태현 원장은 "AMP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고 모교와 AMP 총동창회가 지원하고 지원받는 관계로서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그간 수고하신 김승제 회장께 감사하고 앞으로 동창회를 이끌어 나갈 손영식 회장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두철 상임고문 역시 "물심양면 수고해 주신 김승제 회장께 감사하고 그 바통을 이어받은 손영식 총동창회장의 취임을 축하한다."며 "손영식 총동창회장이 앞으로 우리 동창회를 위해 봉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 AMP가 화합의 AMP가 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09 신년하례회 및 '김한중 총장 초청' 춘계 세미나 '연세의 역사와 이념'

지난 2월 16일 신년하례회 및 '연세의 역사와 이념'이라는 주제로 춘계 세미나가 열렸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는 '김한중 총장'이 강연해 더욱 자리를 빛냈다. 김한중 총장은 '한 번 연세인은 영원한 연세인'이기 때문에 '연세의 역사와 이념'이라는 주제를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2년 동안 임기를 다한 원제철 전 사무총장의 공로패 수여식과 박인서 사무총장의 위촉식이 함께 열렸다.



신년하례회 및 '김한중 총장 초청' 춘계 세미나

지난 2월 16일 롯데호텔에서 김한중 총장과 박상용 경영전문대학원장, 그리고 손영식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여러 임원진과 AMP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2009 신년하례회 및 춘계 세미나'가 열렸다.

손영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 한파 속에서 새해를 맞이했지만, 연세인답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저력을 보여주자."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자리를 빛내 준 김한중 총장과 신임 박상용 경영전문대학원장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한중 총장은 장석주 시인의 <달과 물안개>에 나오는 '대추,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우리에게는 견딜 수 있는 시련만큼 주어지는 것이라며, 지금의 고난을 잘 극복하자고 인사를 전했다. 덧붙여 후배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공부를 중단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위기 극복 10만 원 장학금 보내기 캠페인'에 AMP 동문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어 이번 2월에 신임 경영전문대학원장으로 취임한 '박상용 경영전문대학원장'이 축사를 전했다. 박상용 경영전문대학원장은 경영전문대의 독립 건물 기공을 올봄부터 추진해 경영전문대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the First & the Best'라는 연세의 슬로건을 언급하며, 이 슬로건에 걸맞게 AMP 프로그램을 'Best'로 만들겠다고 다

짐하며 인사말을 마쳤다.

이번 춘계 세미나는 특별히 김한중 총장이 강연해 더욱 뜻깊었다. 김한중 총장은 이번 특강에서 연세의 역사와 이념, 학풍에 대한 내용을 다뤘는데, 특강은 연세를 이루는 두 축, 연희와 세브란스에 대한 역사의 설명으로 시작됐다. 특히 '따뜻한 엘리트를 기르는 것이 오늘날 연세 정신을 이어가는 실천이자 연세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한중 총장은 가족과 함께 했던 지리산 중주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꼭대기를 보면 이르지 못한다. 끝을 다 보려고 하지 말고, 한발 한발 내딛으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면서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하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라는 말로 이날의 특강을 마쳤다.

2008 연세최고경영인의 밤 행사 결과 보고 및 공로패 · 위촉패 수여식

만찬 후 '2008년도 연세최고경영인의 밤 행사 결과 보고'가 있었다. 수지결과보고에서 성구경 재무이사는 "전체적인 수입과 지출의 규모가 2007년 대비 약 10% 감소한 수치로, 총 수입은 총 205,900,000원, 총 지출은 경영전문대학원 발전기금 3천만 원을 비롯해 184,413,580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총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행사 잔액 2천1백여만 원은 동창회 운영자금으로 알뜰히 쓰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원제철 사무총장의 행사 결과 보고에서는 "700여 명의 동문 가족이 함께 한 연세최고경영인의 밤에 협찬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제14회 연세최고경영대상 수상자인 김태옥 시호그룹 회장(25기), 홍순원(주)한스컴 회장(48기), 권병국 성부그룹 회장(64기)에게 다시 한 번 축하의 박수를 부탁했다.

행사 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각 기 회장과 사무국장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사전 참석 접수 대비 실제 참석률의 차이를 줄이는 것을 꼽은 원제철 전 사무총장은 이날 2년이라는 사무총장의 소임을 다하고 동창회 발전과 화합에 이바지한 공로로 공로패를 전달받았다.

원제철 전 사무총장은 "8대, 9대에 걸친 임기 2년 동안 사무총장의 중책을 맡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동창회 발전에 큰 기여를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차기 사무총장을 맡으실 박인서 사무총장을 도와 더욱 협조하는 것으로 이 아쉬움을 대신하겠다."라며 임원진과 동문에게 감사를 표했고, 앞으로도 동창회에 변함없는 사랑을 부탁하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이어 차기 사무총장으로 위촉받은 박인서 사무총장(주)로알DNL 대표이사는 "중책을 맡아 마음이 무겁고 떨리지만 여러분의 응원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노력 봉사할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그는 50기로 그간 동창회 상임이사로 활발히 활동하기도 했다.

김한중 총장은 세미나를 포함한 이날 행사에 끝까지 자리를 지켰으며, 귀가하는 동문과 일일이 특별한 작별 인사를 했다. 손영식 회장 역시 동문에게 감사와 건강을 기원하는 인사를 잊지 않았다.



1. 김한중 총장 2. 박상용 원장 3. 자리를 가득 메운 내빈과 동문들 4. 성구경 재무이사의 행사결과 보고
5. 원제철 전 사무총장 공로패 전달 6. 박인서 사무총장 위촉패 전달 7. 케이크 커팅

124년 연세 역사의 흐름 속에 변화와 발전을 이어간다!

우리 대학교는 2008년에도 국내 최고를 넘어서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 기관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갔다.
'YONSEI, the First & the Best', '앞선 연세, 최고의 대학'을 위해 힘껏 달린 연세의 2008년을 돌아보자.

2008 연세 10대 뉴스

제16대 김한중 총장 취임

2008년 2월 1일 제16대 김한중 총장이 취임했다. 김한중 총장은 연세대의 새 비전으로 'YONSEI, the First & the Best'를 선포했다.

한국 최초 면허의사 100주년 맞아

4월 10일 한국 최초 면허의사 배출 100주년을 기념해 홍석후 선생 흉상제막식, 특별 전시회, 학술 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SCI 논문수 국내 사립 대학 최초 세계 96위

2008년 9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07년도 SCI(과학기술논문색인) 논문 분석 결과 우리 대학교가 국내 사립 대학 최초로 세계 96위로 도약하는 쾌거를 이뤘다.

더타임스 세계 대학 평가, 국내 사립 종합 대학 1위

세계적 일간지인 영국 '더 타임스'지의 하이어 에듀케이션 서플리먼트(Higher Education Supplement)의 2008년 세계 대학 평가에서 우리 대학교가 33순위나 상승하며 국내 사립 종합 대학 1위를 차지했다.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개관

최첨단 IT 기반 유비쿼터스 도서관, 연세·삼성 학술정보관이 2008년 5월 10일 개관했다. 지하 3층, 지상 6층, 전체면적 33,428.25㎡(10,112평)의 규모로서 첨단 IT 시설과 최적의 연구 학습 환경을 갖췄다.

원주캠퍼스 창립 30주년

원주캠퍼스는 11월 29일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열고 30년 동안 놀라운 발전을 한 원주캠퍼스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UIC-Keio-Hongkong '3-캠퍼스 프로그램' 출범

지난해 9월 우리 학교 언더우드국제대학과 일본 게이오 대학, 중국 홍콩 대학

은 '3-캠퍼스 프로그램'을 출범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최초로 3개 대학 학생이(16명) 한팀이 되어 1년 동안 각 대학을 3~4개월씩 순회하며 학점을 이수하는 학교 순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기공식

송도국제화복합단지의 기공식이 11월 26일 인천 송도에서 열렸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는 경제특구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5, 7공구 내 총 61만 4,670㎡ 규모로 조성되며, 우리 대학교 글로벌캠퍼스와 해외 유명 대학 분교, 해외 연구소, 산업체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의료원, 종합관 및 장례식장 봉헌

의료원이 2008년 3월 26일 종합관과 장례식장 신축을 완료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암 전문 병원 건설, 의과 대학 신축 등 장기 마스터플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2008 정기 연고전 압승

2008년 9월 5일과 6일 양일간 잠실 종합운동장과 고양 어울림누리에서 열린 2008 정기 연고전에서 우리 대학교는 3승 1무 1패의 대승을 거뒀다.



Section
2

On the Co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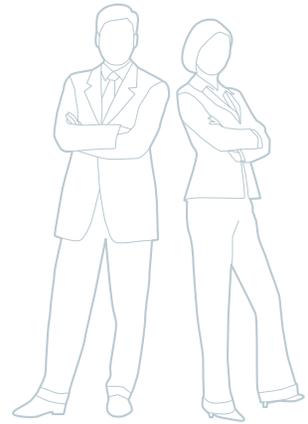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꿈꾼다. 하지만 그 꿈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은 드물다. 자기 혼자 힘으로 온전한 성공을 이뤄낸 사람에게는 특별함이 있다. 자신의 나쁜 습관을 고치고 치밀한 성공을 계획한 것. 자수성가를 꿈꾼다면 자신을 다시 한번 검토하자.

Theme Story 1	40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평범하고 특별한 성공 비법
Interview 1	44	김한중 연세대학교 총장
Interview 2	46	박상용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장 · 경영전문대학원장
Theme Story 2	48	개인 브랜드(Personal Brand) 시대, 나를 차별화해라
Interview 3	52	62기 임각균 동문 · 이트너스(주) 대표이사
Book review	54	조화와 화합을 이끌어 내는 인간관계 안내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평범하고 특별한 성공 비법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꿈꾼다. 하지만 그 꿈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은 드물다. 자기 혼자 힘으로 온전한 성공을 이뤄낸 사람에게는 특별함이 있다. 자신의 나쁜 습관을 고치고 치밀한 성공을 계획한 것. 자수성가를 꿈꾼다면 자신을 다시 한번 검토하자.

당신이 어릴 때를 돌아보자. 한 학급에서 같은 교사에게 똑같은 교육을 받는데도 누구는 100점을 맞고 누구는 30점을 맞았다. 우리는 보통 100점 맞는 학생에겐 '똑똑하다' 반응했고, 30점 맞은 학생에겐 '머리가 나쁘다'고 반응했다. 현대 그 차이를 결정짓는 것이 과연 지능뿐일까. 전문가들은 예습하는 습관, 필기하는 습관, 복습하는 습관 등 공부 습관의 차이라고 말한다. 성공한 사람과 보통 사람을 구별 짓는 차이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차이는 지능이나 재능이 아니라 바로 습관에 있다. 좌절하고 실패해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사실 사람들이 성공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다. 조금만 관심을 두면 그런 정보들은 인터넷에서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문제는 꾸물대기, 산만함, 철저하지 못한 시간관리, 행동의 결여, 의지 부족 같은 나쁜 습관이 당신을 지배한다는 사실이다. 습관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삶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키고자 습관부터 바꿔야 한다. 하지만 수십 년을 살며 구축된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다른 습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한마디로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다. 단, 그것을 어떤 습관으로 바꾸려는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뚜렷한 목적을 두고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이 나쁜 습관을 없애는 확실한 방법이다.

part 1. 나를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성공 습관 만들기

사소한 습관 하나가 성공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다. 100가지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도 나쁜 습관 하나로 평생일대 중요한 순간 고배를 들 수 있다. 우선 자신의 삶을 먼저 체크하고 수정해 보도록 하자.

칭찬에 후한 사람이 돼라 | 성공한 사람은 칭찬과 곱치레 인사에 약한 인간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좋은 말과 칭찬을 한다. '10년은 젊어 보인다' 든가. '패션 감각이 좋다' 는 식으로 상대방의 장점을 치켜세워주면 상대는 당신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대화할 때 주로 듣는 사람이 되자 | 경청도 칭찬만큼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을 표현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귀담아듣는 넓은 귀를 가진 사람을 좋아한다.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라 | 당신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인사는 사람에 대한 인정이자 존중의 표현이다. 상대를 알고 있고, 한 사람으

로 존중한다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또 상대에게 자신을 어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도하다. 모든 관계는 인사로 시작되고 인사로 마무리됨을 명심하자.

당신의 하루를 남보다 일찍 시작하라 | 아침형 인간은 남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한다. 아침도 든든하게 챙겨 먹고 옷차림에도 신경 쓸 수 있다. 특히 일찍 일어난 직후 한두 시간은 방해받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저녁형 인간은 퇴근 후 시간을 방해받기 쉽다. 계획이 있더라도 예기치 못한 일로 일해야 할 때가 종종 있다.

일에서 벗어나 쉬는 시간을 가져라 | 사람의 몸과 정신은 용량이 한정되어 있기에 너무 많은 일로 몸을 채우면 건강을 해친다. 너무 많은 정보와 생각으로 정신을 채워도 과부하가 걸려 마비된다. 적당히 버려야 몸과 정신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법. 휴식과 여가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자신을 계발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자.

part 2. 자수성가로 이끄는 성공 전략 세우기

막연한 좋은 습관만으론 안 된다. 매일 밥 먹듯이 '부자 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노래만 부른다면 당신의 성공 확률은 0%. 무한 경쟁 시대에서 이기려면 치밀하고 철저하게 당신의 성공 전략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밝힌 성공 방법을 토대로 하나씩 실천해보자.

구체적인 단계 전략을 세워라 | '잘하자', '노력하자' 같은 다짐만으로는 안 된다. 반드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를 얻겠다는 구체적인 목적과 방향이 나와야 한다. 계획 수립과 구체적인 실천 지침은

당신을 일사불란하게 행동하도록 변화시킨다. 또 허공에 뜬 모호한 목표가 아닌 구체적인 성과를 향해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한다.

▶ **실천 전략** - '매출 목표 연간 10억 원 달성' 대신, 연간 목표를 월간 목표, 주간 목표, 일일 목표로 세분화해서 달성할 숫자를 명시한다. 그리고 일일 목표나 지침, 전략 방향 모두 행동과 측정이 가능한 형태로 구성한다.

성공 키워드는 '고객'이다 | 모든 것을 '고객'에 집중해서 생각해라. 고객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고객



이 원하는 것을 적시에 제공하려면 남다른 열정과 헌신이 필요하다. 더 많이 고민하고, 더 열심히 발로 뛰고,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고객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야말로 성공한 사람의 보이지 않는 힘이다.

▶ **실천 전략** -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으로 되돌리면 오히려 답이 쉽게 나온다. '어떻게 해야 많은 고객을 유치할까?', '어떻게 해야 실적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고민해라.

자신에게 엄격한 감시자가 되라 | 귀찮을 정도로 집요한 자기 규제와 자기 관리가 성공의 기본 요소다. 사람이란 안전하다고 느끼면 좀처럼 움직이려 들지 않는다.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져들기 쉽다. 5년 후에는 어떤 단계로 발전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 올해에는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자신에게 각인시켜라.

▶ **실천 전략** - 자기 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바로 체크다. 오늘 처리하고 챙겨야 할 '일일 업무 체크 포인트', 하루 동안 만나고 전화하고 챙겨야 할 '일일 고객 상담표' 등을 만들어서 시스템화 한다.

나를 마케팅하자 | '나'를 팔리는 상품으로 만들려면 '나'라는 제품 자체가 주목받을 수 있도록 전문성과 상품성을 두루 갖춰야 한다. 외모만 하더라도 그렇다.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이 만나는 고객을 철저히 분석해 염두에 두고 외모를 가꾸어야 한다. 티셔츠에 청바지 하나를 입더라도 '전략적'으로 입어라. 자세, 말씨, 표정 등도 마찬가지다.

▶ **실천 전략** - 내일 입을 옷을 자기 전에 골라놓는다. 왜 이런 차림이 좋은지, 내일 만날 고객에게 어떤 인상으로 어필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보일지 등 충분히 고려해 최선의 선택을 한다.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지 마라 | 네 번의 실수는 실력이다. 한 번의 실수는 너그럽게 용서되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그것은 곧 실력이 되어버린다. 한편 실패했을 때는 당신의 실수와 실패를 떳떳이 인정하고 공개하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고자 애써야 한다.

▶ **실천 전략** - 프로젝트나 과업 중심으로 이번 일에서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으며 지난번 프로젝트보다 어느 면에서 향상되었는지를 기록하면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일은 성실하되,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 세상에는 뛰어난 재주가 있음에도 실패한 사람이 많다. 성실함과 겸손함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성실함'이란,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면 반드시 그것을 실천하는 능력을 말한다. 남의 탓이나 환경 탓을 하는 것은 가장 불성실한 태도다.

▶ **실천 전략** - 성실함이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며 시간만 제대로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뼈를 깎는 듯한 인내와 치열함을 바탕으로 지켜라. 성실한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철저하고 고객에게 관대하다.

신뢰와 배려가 깃든 품위 있는 개혁을 꿈꾸다 김한중 연세대학교 총장

지난 2008년 한 해는 연세가 'the First and the Best'로서 위상을 떨친 한 해였다. SCI 논문 게재 실적이 세계 9,000개 대학 중 96위로 100위 안에 진입했고, 송도 국제화 복합단지 건설을 시작한 것 등이 이를 잘 드러내는 예다. 이런 성과의 중심에는 올해로 임기 1년을 맞는 김한중 총장이 있다. 그는 모교의 총장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행보하며, 후배들이 연세 안에서 각자의 꿈을 가꿀 수 있도록 노력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온전한 소통을 이뤄, 신뢰와 배려가 깃든 개혁을 이루겠다는 김한중 총장을 만났다. 그는 어려운 때일수록 저력을 발휘해온 연세인답게 AMP 동문이 경제 위기를 지혜롭게 이겨내길 원한다며 말을 이었다.

Q 어느덧 취임 1주년을 맞았는데요, 총장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주요 사안으로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우선 SCI 논문 게재 실적이 세계 9,000개 대학 중 96위로 100위 안에 진입했으며, 연세·삼성 학술정보관을 개관해 첨단 수준의 연구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송도국제대학복합단지(이하 송도국제대)를 기공하는 첫 삽을 떴으며, '더 타임스'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평가에서도 국내 사립 대학 중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1년간 모금 실적은 681억 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게 다 AMP 동창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Q 총장님께서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은 생활관이나 좌우명이 궁금합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출발해 가정과 학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신앙인으로서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며 살 것입니다. 다른 생활신조로는 김구 선생께서 애송하시던 서산대사의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가갈 때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말지어다. 오늘 내가 걸어난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라는 한시 구절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시 구절처럼 후학을 생각해 성실하고 신중하게 행보하려고 노력합니다.

Q 모교의 총장이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대할 때, 제자이자 후배이기에 그 마음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씀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며, 그 이유는?

덴마크의 미래학자인 롤프 옌센(Rolf Jensen)의 말을 즐겨 인용합니다. 그는 정보화 사회 이후에 드림 소사이어티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인재들이 꿈을 꾸고 경영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것은 그 사람의 꿈입니다. 외솔 최현배 선생님께서 "사람의 크기는 곧 꿈과 사랑의 크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꿈의 크기가 내일 학생들의 크기입니다. '아름다운 꿈'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로서 연세인들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준비하고 연마하면서 꿈을 가꾸어 나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Q 학생들에게 꿈을 강조하신다고 들으니, 총장님의 어릴 때 꿈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총장님의 꿈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처럼 변하게 됐나요?

사회과학도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예수의 생애>를 읽고, '슈바이처 박사'를 보면서 인술을 통해서 봉사의 삶을 살고자 의과대학을 선택했습니다. 의대 재학 중 양재모 교수께서 "小醫는 治病하고, 中醫는 治人하고, 大醫는 治國한다."라고 하신 말에 공감하고, 정책과 제도를 통해 전체 국민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방의학자가 되려고 받았던 교육이나 직접 체험했던 경험이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Q 총장 임기 중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다면 어떤 것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세대학교 글로벌캠퍼스와 해외 유명 대학의 분교, 해외 연구소 등을 유치해 첨단 분야로 특성화시킨 캠퍼스인 송도국제대학복합단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핵심 연구 역량을 가진 우수한 교수를 많이 영입하는 것입니다. 10년, 100년을 내다보았을 때, 이러한 것들이 이뤄져야만 연세의 장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지난해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는 풍성한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정기연·고전에서 압승해 전 연세인이 승리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SCI 논문 게재 실적은 세계 9,000개 대학 중 96위로 100위 안에 진입했습니다. 연세·삼성 학술정보관을 개관하여 첨단 수준의 연구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송도국제대학복합단지를 기공하는 첫 삽을 떴습니다. '더 타임스'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평가에서도 국내 사립 대학 중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1년간 모금 실적은 681억 원으로 역대 최고기록을 세웠습니다. 2008년은 연세가 'the First and the Best' 로서의 위상과 자존심을 회복한 해였습니다.

Q 그렇다면, 2009년 현안 과제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에 최고우선순위를 두고, '글로벌 5-5-10' 지원, 특훈 교수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며, 부족한 연구 공간을 늘릴 것입니다.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외국인 인종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육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교육 시설을 증축해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또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학부생과 일반 대학원생의 등록금을 동결하고, 학교 운영은 긴축 경영을 펼칠 계획입니다.

Q 임기를 마친 후 어떤 총장으로 기억되길 바라십니까?

대학은 그 본질이 다양성과 자율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경우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이 급하면 캐노니안식 해법을 원하게 되지요. 개혁도 매듭과 상처가 나지 않게 하면서 바꿀 것은 바꾸는 방식이 되어 해요. 저는 통합의 리더십, 신뢰와 배려의 리더십으로 품위 있는 개혁을 함께 풀어간 총장으로 연세가족에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Q 끝으로 경영전문대학원 총동창회 동문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세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데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해, 국내 대학 가운데 가장 먼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우리 모두 어렵지만, 후배 재학생들이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교에서는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위기 극복 10만 원 장학금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연 1만 명이 참여해 10억 원을 모금하면, 120명에게 1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연세 AMP 동문의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잠재력 100% 발휘에 중요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 박상용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장 · 경영전문대학원장 –

연세대 최고경영자과정(이하 AMP) 동문과 신입 박상용 연세대 경영대학장 · 경영전문대학원장의 첫 만남. 2월 1일자로 취임한 지 열흘째,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 박상용 원장이 AMP 가족을 위해 시간을 냈다. 박상용 원장은 박삼복 상근부회장, 새로 위촉된 박인서 사무총장과 티타임을 가지며 새로운 출발과 함께 끈끈한 협력자로서의 첫 단추를 꿰었다.

올해로 제67기 신입생을 맞는 AMP는 2009년을 경영혁신의 리더로서 한층 더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았다. 때마침 연세대 경영대학장 · 경영전문대학원장으로 재무관리에 정통한 박상용 교수가 임명됐고, 동문들은 그들의 의욕만큼이나 신입 원장에 거는 기대도 크다. 궁금함과 어색함에서 시작된 만남은 어느덧 서로의 간격을 좁히며, 상대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으로 부풀었다. 하루 종일 바쁜 일과 중임에도 반가움 깃든 미소를 잃지 않은 박상용 원장과의 인터뷰는 앞으로의 돈독한 협력과 애정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설레는 만남에서 희망을 엿보다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AMP 동문들이 기대가 큼니다.” (박삼복 상근부회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역할이 많아 책임이 막중합니다. AMP 동창 여러분은 결속력, 일 추진력에서도 뛰어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업무 적응이 어느 정도 되는데로 빠른 시일 내로 뵙겠습니다.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먼저 인사드릴 기회가 주어져 감사합니다. 새로 위촉되신 박인서 사무총장님께서도 앞으로 큰 역할 하시길 기대합니다.” (박상용 원장) “물론입니다. 저 역시 책임이 크데 원장님께서 부족한 부분 많이 채워주십시오.” (박인서 사무총장)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진행된 만남에서 많은 대화가 오가고, 마무리 즈음 박삼복 상근부회장이 박상용 원장께 경영전문대학원의 발전을 위한 부탁의 말과 AMP 활성화에 대한 적극 동참을 제안했다.

“학교에서 AMP 동문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면 신입생 모집도 활기를 띠 겁니다. 한 가지 제안으로, 타 대학과 비교되며 흔들리는 듯한 명예를 원장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으면 하는데, 부탁드려도 되겠죠? 허(웃음)”

“네. 현재 AMP 동문도 뛰어나지만, 앞으로 좀 더 활동적 역할을 할 젊은 인재도 많이 지원하도록 프로그램 개발이나 대외 홍보에도 신경 쓰겠습니다. 연세대의 역사와 진취성은 그 어느 학교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탄탄하다고 자부합니다. 염려 마십시오. 후발 학교가 빠르게 달려와 간격이 좁아진 느낌도 들지만 선의의 경쟁을 통해 연세는 그 간격을 더욱더 벌려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미지 상상을 위한 많은 활동을 전개하고 고착화된 듯한 상황을 변화·개선시켜 여러분의 자긍심을 드높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세 경영인의 자긍심과 잠재력 100% 발휘를 위해

박상용 원장은 한국증권연구원장, 한국이사협회장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온 재무관리 전공의 교육자다. 특히 빠른 상황 판단과 리더십으로 교수들은 물론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연세대 경영대학장·경영전문대학원장에 내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다며 크게 웃는 박상용 원장. 외모에서 엿보이는 카리스마 넘치는 날카로운과, 상황에 따라 윌트 있게 좌중을 리드하는 모습을 겸비한 박상용 원장은 누가 봐도 큰 인물임에 틀림없었다. 재무처장의 보지도 역임한 바 있는 박 원장은 다방면의 역할이 필요한 현재 위치에서 그 책임이 막중하다. 경영대학, AMP, MBA, 상남경영원 등의 과정, 그와 더불어 교수진과 각 분야의 행정 직원들 모두 그가 이끌어갈야 할 몫이다. 책임이 큰 만큼 앞으로의 역할도 중요하다.

박 원장은 연세 가족들에게 “자긍심을 가져라. 그에 걸맞은 여건을 만들겠다.” 또한 “잠재된 자신의 능력을 100% 이끌어낼 수 있는 곳으로, 가능한 잠재력과 현재 수준의 간격을 최대한 좁혀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력 확보, 재정 확보, 시스템 통합관리를 목표로

임기 동안 꼭 이루고자 하는 부분은 ‘현재 가장 부족한 인적자원, 재정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좋은 교수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의 학부시절 훌륭한 은사님들의 지도가 제게 중요했던 만큼 지금의 학생들에게도 절실합니다. 그렇지만 재정적 자원이 필요하죠. 현재 진행 중인 경영전문대학원 신축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좋은



▲ 좌측부터 박삼복 상근부회장, 박상용 원장, 박인서 사무총장

교수 영입에도 필요한 부분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연관지어 ‘경영대 자원의 시스템적 통합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하고 기관별로 관리되는 자원을 통합 관리해서 융통성 있게 부족 분야에 재정을 확보하는 등 교수 채용에 자체적인 해결책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소개했다.

어린 시절 개구쟁이, 새벽 산책으로 건강관리

어린 시절 대단한 개구쟁이로 유명했다는 여담을 전하는 박 원장. 현재의 사회적 위치에 오르기까지 피나는 노력이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연세대 경영대 졸업 후, 뉴욕대에서의 석·박사 학위 취득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활동에서 그의 비상한 통찰력과 적극성을 알 수 있다. 그는 자신을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세계를 바라보는 삶의 가치관이 정립된 시기를 대학 시절로 꼽는 박 원장은 좋은 동료, 좋은 선배들, 좋은 은사님들을 만난 것이 큰 복이라며 “좋은 사람을 만난 것이 행운이었고, 제 삶의 방향이 정해지게 됐죠. 제가 받은 복을 이제는 학생들에게 베풀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평소 취미는 음악 감상과 독서, 그리고 몸이 하아서 ‘헷디’라고 부르는 그의 충견을 데리고 부부 동반으로 아침 산책을 한다는 박 원장. 그렇지만 연일 이어지는 초찬모임으로 산책을 자주 거르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교과 이외의 책도 자주 읽는다는 박 원장은 최근에 <아웃라이어(Outliers)>(말콤 글래드웰 저)를 읽었다. 성공 비결에 대한 새로운 접근, 세상을 보는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책으로 흥미진진해 지인들에게 꼭 권하고픈 책이라고 한다.

가장 비중 있는 AMP 발전에 동참을 약속

마지막으로 AMP 동문들에게 “지속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 좋은 교수 영입과 발전으로 AMP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끼며 각자의 역할이 100% 발휘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AMP가 그 어느 과정보다 가장 비중 있고 중요한 과정임은 익히 아는 바, 동문들의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지속적인 협력에 동참하겠다.”며 “동문들 또한 자신을 많이 도와주길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이어 박상용 원장은 자신의 임기 동안 역할 수행에 있어 관건은 ‘시간관리’라며 앞으로 2년 동안 계획한 일들을 차질 없이 이루도록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 역시 큰 소임 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AMP의 번영을 위해 늘 함께 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했다.



개인 브랜드
(Personal Brand) 시대,
나를 차별화해라

기업과 일부 연예인에게 존재하던 브랜드라는 개념이 이제 개인에게 요구되고 있다. 경쟁이 심한 현 사회에서 '나'는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남과 다른 차이점을 부여하고 자신을 브랜드화할 수 있을까? 자신감과 도전 정신, 그리고 꿈만 있다면, 이미 당신의 '개인 브랜드'는 론칭 준비를 마친 것이다.

Part 1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내 브랜드 가치를 찾아라!

한 개인도 브랜드가 될 수 있다. 아니 오히려 현대 사회는 개인의 브랜드화를 원한다. 평범한 사람도 한 분야의 능력을 극대화해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되는 세상. 지금 경쟁력의 열쇠는 '얼마나 빨리 자신만의 차별화된 브랜드를 찾아내고 그 길에 매진하는가'이다.

브랜드가 세상을 지배한다

브랜드는 고정관념이다. 그 대상이 갖는 기능적 속성은 물론 감정적 이미지까지도 포함하기에 그 브랜드가 속한 기업보다 더 큰 힘을 갖기도 한다. 때문에 좋은 이미지의 브랜드는 단지 그 이름만으로도 소비자의 마음을 열고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제품을 사는 동시에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브랜드다.

오랫동안 이런 브랜드는 기업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실로 막대한 규모의 비용이 한 브랜드를 론칭하고 홍보하는 데 투자된다. 또한 소위 '이미지로 먹고 산다'는 연예인들 역시 자기 자신을 브랜드화하여 대중에게 어필하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기업과 일부 연예인들에게만 해당하던 브랜드가 이제 개인에게도 요구되고 있다.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이미 수년 전부터 기업 CEO들은 자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전문화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개인 브랜드화는 이보다 더욱 확장된 개념일 뿐이다.

미래의 경쟁력, 그리고 자신에 대한 성찰

해를 거듭할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사회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고자, 우리는 항상 뭔가를 배우고 자신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아왔고, 이것이 개인 브랜드라는 새로운 추세로 이어졌다. 비단 한국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계 3대 경영학자로 존경받는 경영 컨설턴트 '톰 피터스'는 "직장 의존에서 자기 의존(Self-reliance)의 시대가 되었고, 나아가 개개인이 직업을 창출하는(Job-invention) 시대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며 동시에 "마케팅 차별화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경쟁자들의 진보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따라서 브랜드의 가치는 계속 오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개인 브랜드 요구의 심화 역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말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개인 브랜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은 개인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점을 꼽기도 한다. 컴퓨터 보안의 대명사로 인식되는 안철수 대표나 현대 정보 기술 산업이 있게 한 빌 게이츠는 그 수식어만으로 그들이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전문 분야를 넘어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그들은 자아실현을 한 동시에 자신들 존재 가치와 이유를 명확히 증명하는 셈이다.

오직 나만의 브랜드가 곧 차별화다

개개인의 이름을 걸고 자신을 브랜딩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명확하게 자신을 파악하는 것이다. 자신이 대외적으로 갖는 위치, 능력 등 나는 과연 어느 정도의 인물인가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객관적인 성찰 아래, 단순한 전문가를 뛰어넘어 브랜드화 하고 싶은 정도로 관심 있거나 가능성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도출해, 장·단기적인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우선 자신이 평소 꿈꿔오던 것이나 좋아하는 분야가 가장 적합하다. 사람은 좋아하는 일에 더 큰 열정을 쏟고, 싫증 내지 않게 마련이다. 또한 그 분야는 되도록 집약돼 있어야 한다. 분야가 너무 방만하면 자칫 책임

지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날 수 있으며, 더욱이 브랜드라는 고정관념은 확실히 인식되기 전까지는 아주 단편적인 정보들만을 남기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전달하고 싶은 이미지를 딱 하나만 정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미래는 전문가 사회다. 엄청난 경쟁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나' 라는 브랜드는 크나큰 자산이 된다. 자신을 직시하고 브랜딩하고자 하는 분야를 정해 나름의 계획을 세웠다면 그 자산을 만들어갈 1단계의 준비가 완료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구체적인 노력이다. 아쉽게도 이런 노력에는 왕도가 없다. 그저 스스로 알맞은 계획을 세워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를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Part 2 '나' 라는 브랜드의 성공적 론칭을 위한 계획서

브랜드화 한다는 것은 냉정한 세상에 자신을 내놓고 평가받음을 의미한다. 이미 자신만의 브랜드에 대한 콘셉트를 확립했다면 1차적 성공 여부는 개인의 노력 여하에 달렸다. 하지만 당신이 공들인 브랜드를 알리고 확장하는 데는 몇 가지 유용한 규칙이 있다.

내 브랜드는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가?

개인 브랜드가 각자에게 필요한 이유는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다. 꿈꾸지 않고 진화하지 않는 인간은 애초에 개인 브랜드라는 개념에 주목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모든 일이 잘되는 것은 아닐 터. 당장 해야 할 일부터 시작해, 5년 10년 후 자신의 위상을 그려보고, 설정한 후 이를 위한 작은 실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 자신이 꿈꾸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당장 급한 일과 가치 있는 일 중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자신이 목표와 배치되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1년 후의 자신과 10년

후의 자신을 놓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후회가 남지 않는다. 또 모든 사람에게 지지받는 브랜드일 필요는 없다. 새로운 길에는 그만큼 안티 세력이 존재하기 마련. 이견을 듣고 비판을 받을 때마다 일일이 괴로워하고 대응한다면 작은 걸림돌 때문에 큰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꼴이 된다. 중요한 것은 남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것임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운이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고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브랜드 홍보를 위한 몇 가지 전략

몇 마디로 나를 표현하는 슬로건이 필요하다 : 브랜드화 한다는 것은 단 몇 마디로 표현 가능한 확실한 이미지를 가졌다는 얘기다. 당신의 브랜드도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감화하도록 의도한 슬로건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자신을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 정리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라 _ 누구나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같은 사이트를 한 개 이상 가지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존재 여부가 아니라 콘텐츠의 수준과 운영이다. 비즈니스 업계에는 일주일에 한번은 메인 화면을 바꿔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다. 그만큼 현대인은 쉽게 싫증을 낸다. 비주얼이든 내용이든 방문자들을 이끌고 이후에 재방문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매력이 있어야 한다.

적극적 지지자(Advocator)를 관리하라 _ 한 우물을 열심히 파다 보면 당신에게 응원을 보내는 지지자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중에서 시키지 않아도 긍정적인 구전을 하는 적극적 지지자(Advocator)가 존재한다. 당신의 분야에 관심을 나타내며 꾸준히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이들이 누군가에게 소문을 낼 것이며, 함께 한 일에 만족한 고객사, 혹은 고객이 더 좋은 일을 소개해 줄지도 모를 일이다.

내 이미지의 정교화, 브랜드 확장

현재의 브랜드 콘셉트를 발전시키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자신의 브랜드를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즉, 성공적으로 론칭된 브랜드 콘셉트를 그와 유사한 다른 영역으로 확장시켜 적용하는 시도다. 예를 들어 재정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인사 관리를 경험하며, 이후에 그 두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 전문가가 되는 식이다. 광고를 만들다가 이미지 마케팅 전문가로 영역을 확장하는 것도 마찬가지. 전혀 관계없는 분야가 아니라, 내가 현재 잘하는 부분을 차용할 수 있어 위험도 적고 자신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언제까지나 자신의 콘셉트가 확실하여 이차적으로 그 브랜드를 세분화시키는 것이 가능했을 때의 얘기다. 무턱대고 활동 영역을 넓히는 것은 금물. 브랜드 확장이 그릇된 방향으로 나가면 오히려 개인 브랜드의 개념이 흔들리고, 이도 저도 아닌 이상한 상태가 되고 마는 경우가 생긴다. 콘텐츠는 없고 타이틀만 요란한 브랜드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아직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개인 브랜드. 하지만 일단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그리고 일관되게 노력하면 이런 구체적인 지침은 당장 내가 매일매일 노력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가 되는 것이다.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 혹은 내년부터라는 생각은 버려라. 두려움을 버리고 남보다 먼저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 더 큰 만족과 성공을 거둘 수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Interview

3

ETNERS

www.etners.co.kr

Total Business Serv

*ETNERS provides y
the Special Busine*

기업의 성공 파트너, 경영 혁신을 책임지다

— 임각균 대표(이트너스, 62기) —

경영 지원 분야 전문 아웃소싱 업체 이트너스의 임각균 대표(62기)는 최근 총무 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묶은 「실무 중심의 전략적 총무」라는 서적을 발간하는 등 경영 지원 분야에서 독보적인 길을 걸어오고 있다. '인사, 총무 하면 역시 이트너스다.'라는 공식의 성립을 위해 전문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씩 없이 달려온 임각균 대표를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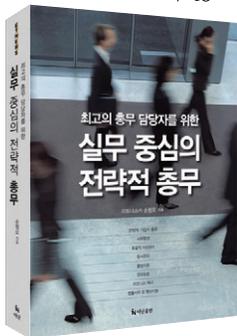
이트너스, 기업의 영원한 동반자를 꿈꾸다

“처음 이트너스를 설립했을 때, 삼성전자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제가 삼성그룹 공채 출신이거든요. 신입사원 시절에 경험한 경영 혁신 업무는 이트너스를 성장, 발전시키는데 원천적인 밑거름이 됐죠.” 1998년 이래 지금까지 임각균 동문은 이트너스에 아웃소싱을 의뢰한 기업의 혁신을 직접 도맡고 있다.

영원한 동반자(ETERNAL PARTNERS)란 뜻을 지닌 이트너스는 경영 지원 분야의 아웃소싱 업체로 1998년 삼성전자 인사 총무부문이 분사되며 출범했다. 이트너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급여, 복리후생, 교육, 채용, 헤드헌팅 등의 인사부문 서비스와 자산실사, 사무환경, DM, 구매대행, 해외주재원 물품배송 지원 업무 등의 총무부문 서비스. 이트너스는 이렇게 경영 지원 부분의 다양한 업무를 세분화 해 전문성을 부여하고 기업의 원가 절감과 업무 효율화를 도와 기업의 성공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전문적 경영 지원 부분의 필요성 발견

“미국, 일본 같은 선진 기업들은 사내의 인사, 총무 기능 중 헤드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70~80%를 외부 전문 업체에 아웃소싱하고 있어요. 내부의 고정비 감소 등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도 있지만,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인사 관련 서비스 중 급여 업무는 경영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문성이 필요한 까다로운 업무 중 하나지만, 대부분 기업은 전문 인력이 아닌 일반 인사 담당자가 급여까지 처리하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부족해 업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관리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경영 지원을 의뢰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급여 관리를 할 때는 몰랐던 업무 부실을 이트너스에 아웃소싱을 맡긴 뒤, 문제점을 발견·개선하는 효과를 톡톡히 본다. 이런 사례가 늘수록 경영 지원 분야의 전문성을 발견하고 과감하게 이 분야로 뛰어든 것에 대

해 보람을 느끼는 임각균 동문이다. “항상 어떤 서비스를 하든지 고객 관점에서 고객에게 유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한다.”라고 말하는 그. 이렇게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고객과 함께하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

지칠 줄 모르는 경영 혁신을 향한 열정

임각균 동문은 AMP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최고 경영자를 만난 경험이 이트너스를 경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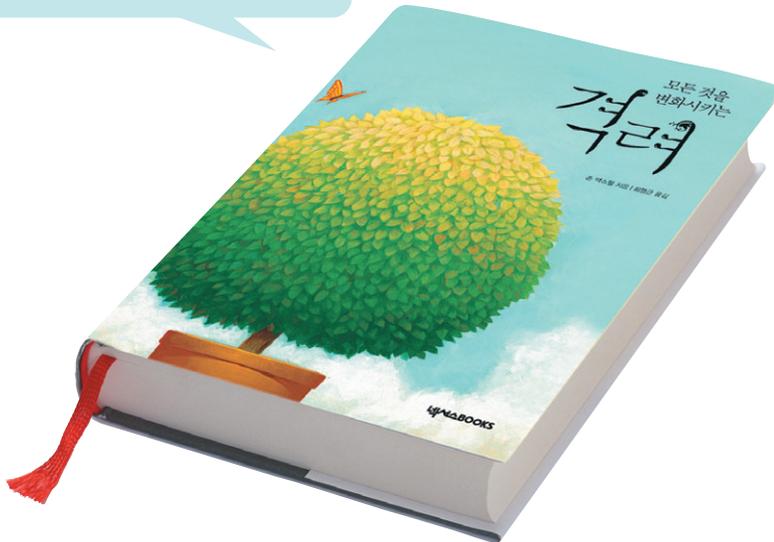
“실제로 현재 기업을 경영하는 실무자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흔치는 않잖아요. 그런데 AMP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에 최고 경영자로 있는 동문을 만나고, 그분들께서 경영하며 겪은 문제점과 어려운 점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동문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됐죠. 그동안 저희는 삼성전자, 금호아시아나, GE, BC 카드 등 주로 대기업을 상대로 영업해 왔거든요. 하지만, 기존에 이미 시스템이 잘 구축된 대기업보다는 아직 시스템 구축이 미비한 중소기업이 전문적인 경영 지원 서비스를 받는다면 한층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솔루션도 개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에요.”

이미 대기업 사이에서는 경영 지원 부분 아웃소싱 업체로 이름난 이트너스. 하지만, 임각균 대표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그동안 쌓아온 기업 지원 업무의 노하우를 토대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시장에서도 성공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임각균 동문의 이러한 열정이 있기에 그의 제 2 도전 역시 귀추가 주목된다.

조화와 화합을 이끌어 내는 인간관계 안내서

서로 다른 개인이 만나서 '조화'와 '화합'을 이루고, 나아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면 개인 간의 원활한 인간관계가 밑바탕이 되어 한다. 이 관계의 밀착도에 따라 조직 성과의 성패가 좌우되므로 원활한 인간관계는 조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당신의 조직의 화합을 이끄는 친절한 안내서를 소개한다.

존 맥스웰 지음, 최형근 역음 / 넥서스 퍼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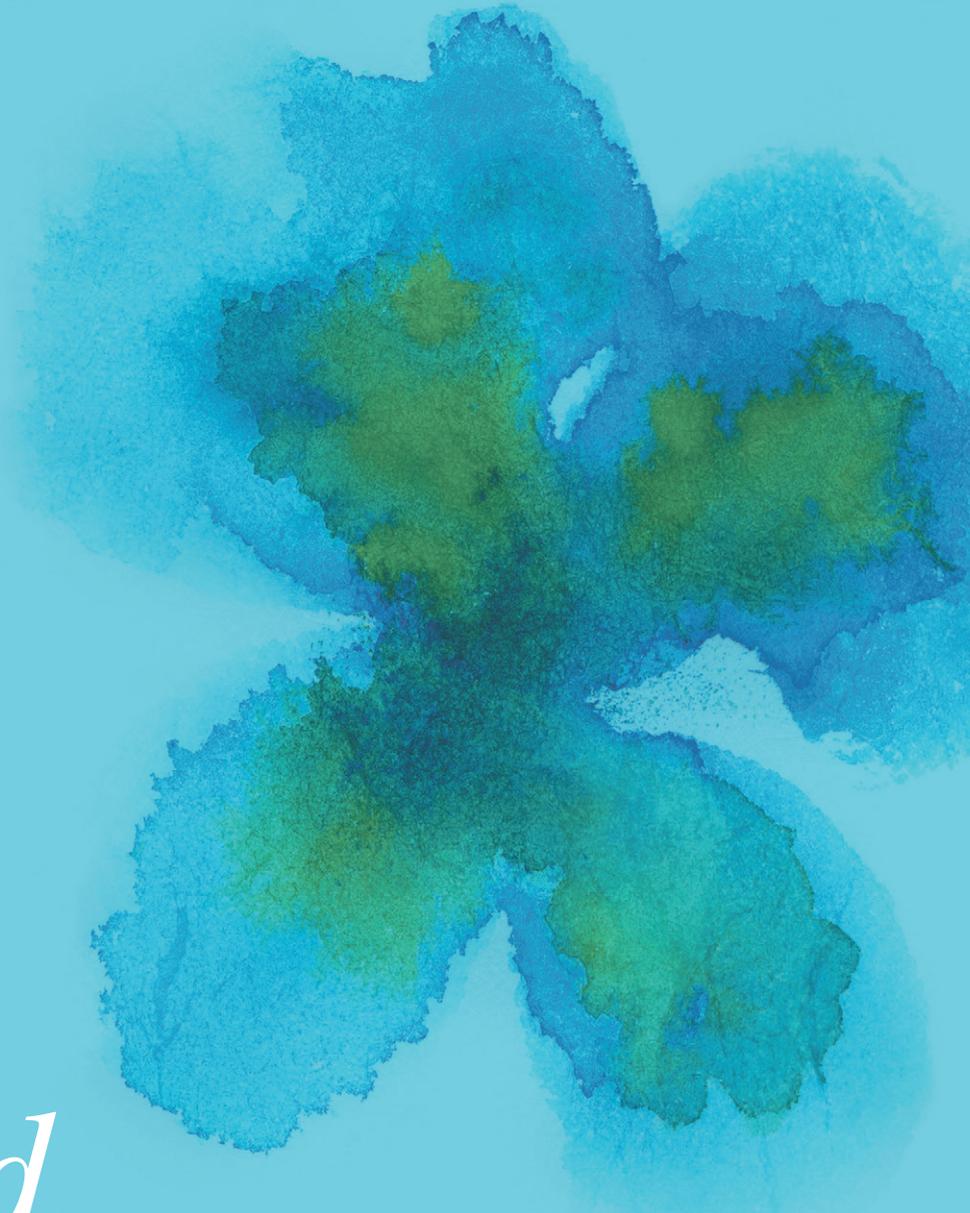


격려하는 법부터 배우자

〈격려 :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고 했다. 「격려」는 '격려가 주는 변화의 힘'을 주제로 삼고 있다. 진심이 담긴 격려 한마디는 절망에 빠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열정과 환희를 지속시켜 일의 완성도를 높이기도 한다. 때문에 저자는 격려가 주는 무한한 힘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삶의 열매를 제시하고 격려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파한다. 저자는 격려를 받아 삶을 일으키고, 이러한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격려의 중요성을 말한다.

인종 차별로 불우한 가정환경을 뛰어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오바마의 대선 승리도 한 사람의 격려에서 출발했다. 그는 부모의 이혼과 죽음 등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십 대 시절에는 마약에 손을 대기도 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는 격려 한마디가 그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고, 결국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감격을 맛보게 했다. 이처럼 인정과 사랑, 끝없는 격려가 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어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킬 가능성을 심어준 것이다.



Section
3

Trend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자 다양한 정책과 세제 지원 내용이 발표됐다.

2009년 개정된 부동산 세법의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용하면, 향후 부동산 취득이나 처분에 좀 더 효율적인 투자 기회를 만들 수 있다.

Trend Report	56	새로운 부동산 제도 꿈꿈 가이드, 제도를 알면 길이 보인다
Healthy Life	58	행복으로 안내하는 내 마음의 비밀 지도
Well-Being	62	활력을 충전하는 체질별 맞춤 보양식
Leisure	64	사진은 몸과 마음의 천연 비타민
Culture	66	사랑의 계절, 삼페인 한 잔 어떠세요?
Column	68	명품 인생을 만드는 투자의 법칙
Travel 1	70	백제의 꿈과 한이 서린 백마강
Travel 2	74	광활한 대륙에서 사람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다
Winning Habit 1	76	성공을 부르는 언어, 긍정의 주문을 외워라
Winning Habit 2	78	다이어리, 성공을 만드는 현명한 지혜

2009년 개정된 세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공략하자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자 다양한 정책과 세제 지원 내용이 발표됐다. 2009년 개정된 부동산 세법의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용하면, 향후 부동산 취득이나 처분에 좀 더 효율적인 투자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글 _ 16기 유영경 동문
(한우 세무법인 대표세무사)

2009년 부동산 개정 세법의 큰 흐름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여 실물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리라 기대된다’는 것이다. 개정 세법의 내용은 크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로 구분해 요약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위해 합리적으로 조정된 종합부동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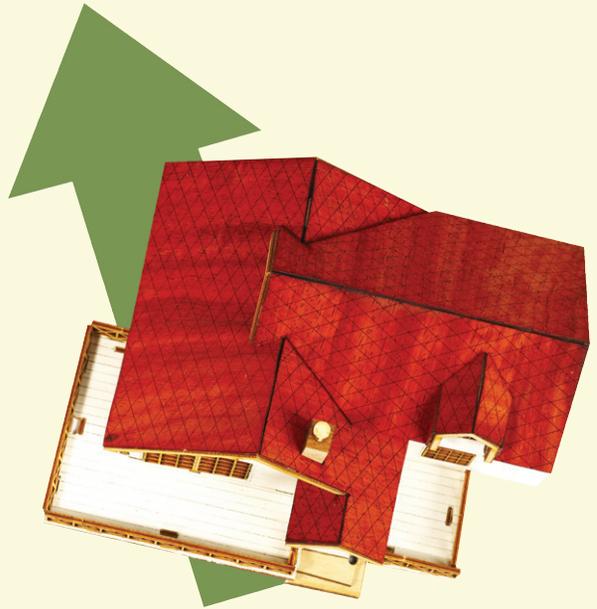
2008년 12월 12일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종합부동산세법과 관련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이 12월 26일부터 공포, 시행됐다.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구간 및 세율 등을 대폭 조정해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그 중 주목할 내용이 몇 가지 있다.

먼저, 1세대 1주택자 중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2008년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장기보유세액공제율은 5년 이상 보유 시 20%, 10년 이상 보유 시 40%를 적용하며, 고령자세액공제율은 60~64세는 10%, 65~69세는 20%, 70세 이상은 30%를 적용한다.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자’가 지방에 소재한 주택이나 등록문화재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계속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금액은 9억 원으로 조정됐고, 장기보유공제·고령자공제를 모두 허용한다.

세 번째 특징은 2008년분 ‘주택분 및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을 2007년도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세 부담 상한액을 전년도 보유세액의 300%에서 150%로 인하한 것이다.

이 밖에도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의 내용을 보면, 다가구 주택은 원칙적으로는 1주택으로 보되, 납세자가 신청하면 합산배제대상 매입임대주택으로 본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의 「상시 세제지원체제」에 따라 대폭 개편된 양도소득세

지난 3월 16일에 발표된 경제 활성화 지원 세제 개편안에 따라 다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중과가 폐지됐다. 따라서 2주택, 3주택자도 기존과 달리 양도세를 기본 세율(6~35%, 내년부턴 6~33%)로 과세한다. 그동안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자는 6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다 지난해 12월 양도세 완화 조치로 2주택자의 경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기본 세율을, 3주택 이상자는 45%를 적용했다.

이번 개편안에서도 1세대 1주택자에만 적용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연 8%, 최대 80%)는 2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3월 16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폐지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에 30%를 추가 과세하던 제도가 폐지되고, 법인세만 과세하게 됐다. 또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60%가 부과됐던 중과제도도 폐지해 앞으로는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기본 세율(6~35%, 내년부턴 6~33%)로 과세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는 계속 배제된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 전, 2009년 3월 16일 법안 발표일 부터 미리 시행된 것이다. 따라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상기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행복으로 안내하는 내 마음의 비밀 지도

'행복'에 관한 상담심리학 연구 결과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사업 성공이나 고속 승진 또는 일확천금 같은 거창한 경우보다 가족과의 편안한 친밀감, 사람에 대한 굳은 믿음, 스트레스가 적은 출퇴근처럼 일상의 단순한 순간들에서 우리가 더 오래도록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복을 더 자주 그리고 더 진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글 _ 이홍숙 | 부부·가족 상담 전문가



숨겨진 행복, 발견의 기쁨 ◎ ● “이제 꿈에 그리던 내 집만 장만하면, 내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만 오르면, 아이들이 시집·장가만 가면, 회사의 입지가 어느 위치까지만 오르면 내 인생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거야.” 자신이 이루고픈 목표를 향해 매진할 때면 누구나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그토록 바라던 것을 모두 이루고 나면 어떤 일인지 행복감에 빠져들기보다 상실감에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해야 할 상황. 그런데 왜 정작 당사자의 마음속엔 그 반대의 감정이 커지는 걸까? 그 이유는 바로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자신이 어떤 일과 상황과 감정에서 행복을 느끼는지, 자신의 마음 성향과 삶의 방식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그리고 행복을 더 많이 발견하고 더 자주 느끼려면 자신에게 어떤 연습이 필요한지를 배운다면 분명히 우린 더 밝고 건강하게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자, 이제라도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을 괴롭히는 골치 아픈 일들은 잠시 떨쳐버리고 행복 찾기 여행을 떠나보자. 내 삶을 샘물 같은 기쁨들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비밀 지도와 함께.

STEP 1 나의 행복 느낌 분석하기 ◎ ● 우선 지금 내가 느끼는 행복과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자. 연필과 노트도 준비해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꼈던 때가 언제인지 천천히 떠올려 보자. 과거 어느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좋고 지금 현재 내가 느끼는 삶의 행복을 적어도 좋다.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5. _____

내가 적어내려간 행복의 장면들은 무엇인가를 이뤄낸 절정의 순간일 수도 있고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사소한 순간일 수도 있다. 그 어떤 것이든 이를 통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판단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 수준을 알아보자. 그리고 계속되는 마음 여행에서 들려줄 새로운 제안과 실천법을 몇 달 동안 실행에 옮겨 보자. 이후 다시 테스트를 해보면 내 인생에서 만족도와 행복 정도가 얼마만큼 상승했는지를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삶에 대한 만족도 >

1. 현재의 삶에 만족합니까? ()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10(매우 그렇다) 사이의 숫자를 적으세요.

2. 평소에 당신은 얼마나 행복/불행하다고 느끼니까?

(평균적인 행복의 체감도를 묘사한 아래 항목 가운데 하나를 골라 V자로 표시하세요)

- 더없이 행복하다(황홀하고 환희에 차있으며 환상적인 기분이다)
- 대단히 행복하다(정말 기분이 좋고 의기양양하다)
- 꽤 행복하다(기분이 썩 좋으며 활기도 있다)
- 약간 행복하다(기분이 고양되어 있으며 좋다)
- 중간이다(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 조금 불행하다(중간 수준에 조금 못 미친다)
- 약간 불행하다(조금 더 아래 수준이다)
- 꽤 불행하다(약간 우울하고 기분이 저조하다)
- 대단히 불행하다(의기소침하여 기분이 매우 저조하다)
- 더없이 불행하다(대단히 우울하며 기분이 완전히 가라앉았다)

3. 행복, 불행 또는 그 중간 상태(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은 상태의 기분)간의 시간 비율은 어떤가요?

(세 가지 항목에 1에서 100까지의 숫자를 적으세요. 숫자의 합이 100퍼센트가 되어야 합니다)

- 행복하다고 느끼는 시간은? ()%
- 불행하다고 느끼는 시간은? ()%
- 중간정도라고 느끼는 시간은? ()%

STEP 2

내 가치관과 삶의 방식 점검하기 ● ● 이제 두 번째 여행 코스가 준비되어 있다. 이곳에선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무엇을 더 큰 가치로 여기며 그로 인해 내 삶은 지금 어떤 모습일지를 들여다볼 수 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왜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지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낙천주의자인가? 염세주의자인가?**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낙천적인 성격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앞으로의 인생이 잘 풀리고 좋은 일로 가득할 것이라 믿는다. 또한 현재의 문제들은 일시적이고 그 상황에 한해서만 힘들 뿐이며 결국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비관적인 사람들은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믿으며 그 원인이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라고 여긴다. 그로 인해 사소한 좌절로 며칠씩, 길게는 몇 달씩 괴로워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삶을 바라보는가?

■ **과거, 현재, 미래 중 언제를 살고 있는가?** 미국의 긍정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먼 교수는 “현재를 즐기면서 미래를 계획하고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과거, 현재, 미래 어느 한 곳에만 관점이 집중된 사람은 균형을 이루지 못해 자신은 물론 주위사람도 편안하지 못하게 만든다. 너무 많은 사람이 ‘현재가 아닌’ 시간을 살고 있다. 만약 오늘 하루를 최고의 날로 채운다면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질까?

■ **혹시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가?**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행복할 때는 대범하게 행동하는 반면 불행할 때는 사소한 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결혼이나 취직 등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에 실패했다라도 그 문제에 깊이 빠져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작은 일 한 가지만 잘못된 것뿐인데도 인생 전체를 포기하고 만다. 내가 지금 집착하는 일들은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인가?

■ **최상주의자인가, 만족주의자인가?** 최상주의자는 간단하게 허기만 달랠 심정으로 나섰는데 결국에는 최고의 음식점을 찾아 헤맨다. 최상주의자는 과도한 정보에 시달릴 뿐 아니라 결정 후 포기한 것들을 아쉬워하느라 고통을 받는다. 반면 만족주의자는 ‘이 집이 좋아 보이는군. 여기서 먹어야지’ 하며 쉽게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음식 맛이 조금 떨어져도 그다지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의 선택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

STEP 3

행복 발견 생활수칙 실천하기 ● ● 두 번째 여행 코스에서 '나'를 발견했다면 이제 마지막 '행복 찾기' 코스로 향할 차례다. 소소한 일상 속에 숨겨진 수많은 행복을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발견하려면 연습과 실천이 필요하다. 여기 '9가지 법칙'은 이를 위한 작은 도움이 될 것이다.

1. 좋아하는 일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라

설명을 붙일 필요도 없다. 인생이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일들로 가득찬가? 하지만 분명 내가 좋아하는 일에 빠질 수 있는 짧은 자투리 시간은 언제나 내게 주어져 있다.

2. 일부러라도 낙천주의자처럼 행동하라

얼굴엔 언제나 미소를, 행동은 외향적이고 낙천적으로!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뇌는 이런 성향을 자연스럽게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

3. 자신을 자책하지 말고 칭찬하자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나 자신이다. 스스로에게 불가능한 요구를 하거나 결과에 대해 자신을 확대하지 마라. 반면 자랑스럽게 느낄만한 일을 해냈을 땐 잊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작은 보상이나 선물을 안겨주자.

4. 현재의 상황을 그 자체로 즐겨라

큰 난관은 흥미진진한 모험으로, 작은 성취는 세상이 내려준 축복으로 생각하라. 문제를 애써 과장하지 말고 기쁨을 굳이 감추지 않는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행복의 바탕이 되는 '마음 중심'을 찾을 수 있다.

5. 인생의 소소한 즐거움을 만끽하라

점심에는 신선한 채소 샐러드를 맛보고 주말에는 푸름을 더해가는 신

록을 밟아라. 심리학자들은 즐거운 순간을 '마음속 사진'에 담아두면 스트레스를 훨씬 더 잘 이겨낼 수 있다고 조언한다.

6. 시간을 쪼개서 계획적으로 관리하라

자신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그 목표를 하루하루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목표들로 나눠라.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달성하면 어느새 행복하게 시간을 지배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7. 역경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준비하라

신앙이든 긍정적인 사고든 무엇이든 좋다. "최악의 상황은 이제 지나 갔어.", "누구도 날 쓰러뜨릴 수는 없어 강하게 할 뿐이지."처럼 나만의 주문을 만들어 외쳐도 좋다.

8. 활동적인 취미로 인생을 채워라

컴퓨터나 TV 앞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대신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취미를 가져보자. 베란다에 작은 정원을 가꿔보거나 레저 동호회에 가입해 주말을 보내는 것도 알찬 방법이다..

9. 자투리 시간을 알차게 활용하라

우리는 늘 뭔가를 하느라 바쁘다.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그중 의미 없이 버려지는 시간도 많다. 친구와 만날 땐 약속 장소를 서점으로 정하거나 월차 휴가를 받은 날엔 밀린 잠을 보충하는 대신 좋은 전사회를 찾아다니면 '나'를 충전하자.

이제 책상 정면이나 냉장고 문 앞에 이 '9가지 보물찾기 방법'을 붙여두자.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행복을 위해 오늘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떠올려보자. 행복을 찾는 방법은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 펼쳐져 있다. 하지만 이를 내 안에 습관처럼 배어나게 하려면 걸음마를 연습하듯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내 행복을 만들어주는 전문가 는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다. '나'부터 바꾸려는 마음가짐과 실천. 자,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자!



활력을 충전하는 체질별 맞춤 **보양식**

자연은 벌써 봄 맛을 준비가 한창이다. 하지만 우리 몸은 바뀌는 계절에 적응하지 못하고 아직도 겨울의 끝자락을 헤매고 있다. 당신도 그렇다면 원기를 가득 불어넣어 줄 보양식이 필요하다. 한의학에서는 음식도 체질에 맞춰 먹으면 좋다고 했다. 활동력을 높이는 체질별 보양식으로 다가오는 봄, 생생하게 깨어나자!

자료 _ 명옥현한의원, 자연담은한의원

겨우내 움츠렸던 몸은 생각보다 쉽게 풀리지 않는다. 운동이 도움된다고 해 갑작스럽게 달리기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보지만 평소 운동과 담을 쌓고 지냈다면 피로가 누적되고 일에 대한 의욕만 감소하기 마련. 하지만 언제까지 겨울잠에 취해 꾸벅거릴 수도 없는 법이다. 우리 조상은 봄이 다가올 때, 보양식을 먹어 겨우내 소모했던 체력을 다시 회복하고 몸 상태를 바로 잡았다.

흔히 보양식이라고 하면 희귀하고 값비싼 음식을 생각하는데 진귀한 음식이 건강의 보증수표는 아니다. 그보다는 닭고기, 돼지고기, 봄나물 등을 자신의 체질에 맞춰 섭취하는 게 다른 어떤 보양식보다도 효과적이다. 각각의 체질에 맞는 보양식은 어떤 게 있을까?

태양인

기름 내리며 음기를 보하는 음식 섭취



태양인은 폐 기능이 강하고 간 기능이 약한 체질로, 기름 내려 하초(下焦)에 쌓이게 하고 간을 보해 줘야 한다. 태양인은 저돌

적이고 오직 앞으로만 나아가려는 특성이 강하다. 즉, 기가 위로 많이 발산하므로 기름진 음식이나 고열량의 음식보다는 담백하고 시원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이로운 음식 | 담백하며 서늘한 음식이 좋다. 새우, 굴, 전복, 소라, 붕어, 문어, 뱀어, 오징어, 게, 해삼, 포도, 감, 다래, 모과, 머루, 송화, 메밀, 순채 나물, 솔잎 등이 좋다.

해로운 음식 | 맵고 뜨거운 음식이나 지방이 많은 음식, 고칼로리 음식이 나쁘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꿀, 인삼, 녹용, 영지, 삼계탕, 보신탕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소양인

차면서 음기를 보충하는 음식 섭취



소양인은 비장과 위장 기능이 강한 반면 신장과 방광은 약한 체질로, 몸의 화와 열을 내려주고 음기를 보충해주며 신장 기

능을 보해줘야 한다. 몸에 화와 열이 많으므로 열이 많은 음식이나 맵거나 자극적인 향신료 등은 피한다. 반면 소화기가 강해 찬 음식을 먹어도 배탈이 나는 경우가 드물다.

이로운 음식 | 싱싱하고 시원한 음식이 좋다. 돼지고기, 오리, 굴, 해삼, 새우, 사과, 토마토, 배추, 오이, 가지, 호박, 상추, 우엉, 감자, 미나리, 당근, 보리, 팥, 녹두, 참깨 등이 좋다.

해로운 음식 | 뜨거운 음식은 나쁘다. 닭고기 쇠고기 우유는 소화불량 두드러기 복통 설사를 유발하고 개고기 인삼은 번열, 땅콩은 두통과 피로를 유발한다. 자극성 있는 조미료도 삼간다.

태음인

적당한 양의 음식 섭취



태음인은 느긋하고 무엇이든 잘 먹지만 습과 담이 많은 체질로 여러 가지 성인병이 생기기 쉽다. 따라서 열을 제거하고

기의 순환을 돕는 한편 폐를 보해야 한다. 과식하기 쉬우므로 음식량을 조절하되 고단백 저칼로리 음식을 먹어야 성인병도 예방하고 건강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로운 음식 | 식욕이 왕성하므로 고단백 저칼로리의 음식을 섭취해 비만을 피한다. 쇠고기, 대구, 미역, 다시마, 김, 해조류, 무, 연근, 마, 토란, 버섯, 밀, 들깨, 수수, 현미 등이 좋다.

해로운 음식 | 고칼로리 음식, 지방식이 나쁘다. 달걀은 중풍, 고혈압, 심장질환 등에 안 좋고, 개고기, 염소고기는 번열이나 치질에, 배추나 사과는 기침에, 돼지고기는 감기, 고혈압 등에 안 좋다.

소음인

소화할 수 있는 음식 섭취



소음인은 비장 기능이 약하고 신장 기능이 강한 체질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양기를 보충해줘야 한다. 소음인은 몸이

차면서 소화 기능이 약하고 신경이 예민하여 몸을 보하는 약이나 음식을 먹을 때에 먼저 소화시킬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이로운 음식 | 따뜻한 음식이 좋다. 닭고기, 명태, 조기, 멸치, 대추, 사과, 토마토, 시금치, 미나리, 양배추, 썩갠 파, 마늘, 들깨, 생강, 고추, 후추, 찹쌀, 조, 감자 등이 좋다.

해로운 음식 | 차거나 익히지 않은 날 음식은 피한다. 돼지고기, 생선회, 오징어, 냉면, 참외, 수박, 빙과류, 생맥주, 보리밥, 밀가루는 소음인에게는 맞지 않다.

사진은 몸과 마음의 천연 비타민

요즘 주위에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은퇴한 고위 공직자나 큰 기업의 CEO들이 사진전을 열거나 자신의 작품으로 그리팅 카드나 캘린더를 만들어서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경우도 봅니다. 2년 전, 서울의 한 갤러리에서 열린 「CEO 사진전」에는 선우중호 전 서울대총장,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 유열 유미디어 대표이사, 이행희 한국코닝사장, 김종철 서울대치과대학장, 김호준 BMW 코리아 사장, 문훈숙 유니버설발레단 이사장,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정광은 한국후지제록스 회장, 최준근 한국HP 사장, 한용외 삼성사회봉사단 단장, 허기호 한일시멘트 사장, 홍성원 현대NHS 사장 같은 쟁쟁한 기업의 CEO와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들이 자신들이 찍은 작품을 걸고 솜씨를 겨루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문화예술 분야와 예능계 유명인들이 사진을 취미로 삼고 작품을 발표한다는 것은 지금은 뉴스거리도 되지 않을 정도로 보편화되었습니다.

골프나 등산에 열중하던 사람들이 사진으로 방향을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이 들거나 힘이 들어가서 아닙니다. 사진에는 분명 골프나 등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점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카메라를 목에 걸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산으로 들로 돌아다닐 때의 운동량은 장난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진은 가파른 산에 오르는 것과는 달리, 몸에 무리가 가지도 않고, 또 높은 산정까지 힘들게 올라갔다가 반드시 해가 떨어지기 전에 다시 내려와야 한다고 하는 압박관념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습니다. 자신의 페이스에 따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 되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으면 젊어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최근 일본에서 실시한 의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그 말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혈관의 탄력과 동맥의 경화도는 물론, 스트레스의 정도까지 측정해서 그 편차치를 산출하는 가속도 맥파(APG) 장비에 의한 검사 결과, 사진을 찍는 사람들 가운데 약 80%의 혈관 연령은 일반 사람들의 표준 연령보다 1년에서 7년까지 젊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혈관 연령이란 일반적인 나이와는 개념이 달라서, 보통 나이로 환산했을 때는 1년의 편차치가 실제 나이보다 약 2~5배나 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진은 이처럼 혈관 연령을 젊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줄여줌으로써, 노화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사진은 단순한 운동이나 취미가 아니라 훌륭한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운동이라면 조깅이나 등산, 골프, 헬스 같은 것도 있지만, 사진 촬영은 그냥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는 것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눈과 머리를 써야 하고 강도 높은 긴장과 집중력이 요구되는 스포츠입니다. 카메라의 각 부분을 조작하고 셔터를 누르는 손가락은 대뇌와 직결되어 신경조직을 활성화시킨답니다. 그뿐인가요, 눈에 들어오는 대상들에 대한 순수하고 강한 호기심이나, 피사체를 발견하고 표현해내는 즐거움, 촬영에서 프린트가 완성되어 나올 때까지의 정신적인 고양감과 기대감, 제대로 된 사진이 찍혀졌을 때의 희열과 성취감은 말로는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사진은 어떤 값비싼 보약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몸과 마음의 천연 비타민입니다. 서양에서는 사진을 찍는 것을 '쏜다(shot, shoot)'고 말합니다. 그것은 산과 들판과 거리의 구석구석을 헤매면서 피사체를 찾아다니는 사진가의 모습이 마치 깊은 숲 속에서 숨을 죽이고 야생의 짐승을 노리는 사냥꾼의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닐까요? 사진촬영은 헬스클럽에서 러닝 머신 위를 달리는 단순한 운동과는 달리, 정신을 집중하고 기민하게 몸을 움직여주어야 하는 스포츠입니다. 인간의 머리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항상 자극을 주거나 쓰지 않으면 딱딱하게 굳어지기 마련입니다. 사진은 세상의 어떤 취미활동보다 심신을 활기차게 만들어 주고, 나이가 들면서 굳어져 가는 몸과 머리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가장 건강한 스포츠입니다. 그뿐입니까? 사진은 번거로운 일상과 잡념을 잠시 떨쳐버리고 자연 속에서 자유를 만끽하게 해



주고,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하루 종일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이른 봄, 한적한 시골의 길가에서 수줍게 피어 있는 이름 모를 풀꽃, 파란 하늘에 높이 뜬 흰 구름, 소나기가 갠 다음 물기를 머금은 싱싱한 나뭇잎, 하늘을 온통 붉게 물들이며 바다로 지는 석양, 햇살을 받아 은화처럼 반짝이는 잔물결, 귀여운 손자들의 모습... 어느 것 하나 아름답고 감동을 주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아도 충분히 아름답지만, 누구나 그 느낌을 오래오래 간직해 두고 싶다는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카메라가 있다면 그것을 생생한 모습으로 고스란히 기록해서 자신만의 보물로 영원히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이란 형체가 없는 안개처럼 흩어지기 쉬운 것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다가 나중에는 결국 깊고 어두운 망각의 세계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설사 보았다고 할지라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은 이처럼 자신이 바라본 것, 감동을 느낀 것, 오래오래 기억해두고 싶은 모든 것을 가장 분명하고 변하지 않는 모습 그대로 기억의 창고에 영원히 붙잡아두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 오래전입니다만, 지금도 사진을 전공으로 선택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좋은 사진, 함께 시작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글 _ 29기 임향자 동문
(AMP 상임부회장,
포투스페이스 대표)
ceo@iphos.co.kr

사랑의 계절, 샴페인 한 잔 어떠세요?

“형제여, 드디어 별을 보았습니다.” 이 말은 약 200여 년 전 샴페인의 아버지 동 페리뇽이 수많은 노력 끝에 기포가 올라오는 샴페인을 만들고 했던 첫 마디다. 샴페인은 모든 축하하는 자리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즐기는 발포성 와인이다. 오늘의 주제는 사랑과 샴페인이다. 모든 사랑하는 사람이 가슴 설레며 기다리는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나 3월 14일 화이트데이에 특히 사랑받는 와인~. 밸런타인데이는 3세기경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 2세가 전쟁에 원정하는 병사의 결혼을 금지하자, 이에 반대하는 사제 발렌타인이 몰래 결혼을 허락하다 발각되어 순교를 당한 날을 기리고자 만들었다고 한다. 이후 교황이 밸런타인데이를 공개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날로 삼아서 오늘날 전 세계 젊은 이들이 밸런타인데이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필자는 2000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에 일본 오사카를 방문해 당시 주요 고객과 상담하며 오찬을 함께 한 적이 있다. 마침 일본 고객사의 실무자도 배석하였는데 자신의 나이가 30대 후반이며 회사 동료 여직원과 교제 중인데 결혼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객사 사장에게 그 청년 직원을 도와주라고 청하니 개인적인 일은 자신이 해결하라며 간단히 답변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필자가 그 청년에게 여자친구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저녁 약속을 잡고 식사 전에는 '모에 상동 로제(Moet Chandon Rose)' 샴페인을 간단히 마신 뒤, 식사하면서 프랑스 보르도의 '칼롱세귀(Calon Segur)'를 마시라고 추천하며 와인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었다. 결과가 궁금하시리라. 사랑의 와인을 마신지 정확히 4개월 후인, 그 해 6월 결혼했다고 한다. 와인으로 중매를 선 케이스가 된 것이다.

일본에서는 밸런타인데이에 가장 인기가 있는 와인이 보르도 생테스테프(St.Estephe) 지역의 3등급 와인인 '칼롱세귀'다. 라벨에 하트 문양이 있는 덕에 사랑의 선물로 인기가 높지만 이 와인은 실제로도 훌륭하다. 이 와인은 니콜라 세귀 후작의 소유로서 그는 당시 '라뚜르', '라피트', '무통 로첼드' 등 1등급 와인을 3개나 소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귀 후작은 "내 마음은 이 칼롱에 있소"란 말을 남겼다. 그 후 '칼롱세귀'는 일약 유명해 졌다. '칼롱세귀'는 메를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마시기 부드럽고 흙냄새와 베리 종류의 과실 향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맛을 내는 와인이다.

2월은 밸런타인데이를 비롯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등 중요한 일이 많다. 이런 좋은 날은 대개 샴페인으로 축하를 하거나 격려를 해주는 일이 많은 법이다. 샴페인은 정확히 해석하면 스파클링 와인 중 프랑스 샹파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샴페인(Champagne)이라 하며 프랑스의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스파클링 와인을 크레망(Cremant), 독일은 젝트(Zekt), 이태리는 스푸만테(Spumante), 스페인에서는 카바(Cava)라 부른다. 샴페인을 만드는 포도 품종은 샤르도네, 피노누와, 피노 뫼니에 등이며 이를 혼합하거나 단일 품종으로도 만든다. 샴페인은 세계적으로 선호가 높아져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추세다. 물론 각종 파티에는 늘 샴페인이 등장하지만 일반 식사에도 샴페인은 음식과 잘 어울린다. 식사 전에는 '아페리티브로'라는 샴페인이 가장 잘 어울리는데 이에 맞는 음식으로는 석화, 생딸기, 또는 캐비어가 있다.

좋은 샴페인은 기포가 가늘고 풍성하게 올라오며, 마셨을 때 상큼하고 입안의 질감을 높인다. 무수히 많은 종류의 샴페인

이 있지만 그중 좋은 샴페인 몇 개를 소개하고자 한다.

동 페리뇽 : 샴페인의 대명사 '동 페리뇽'은 프랑스 오빌리아 수도원의 수도사인 삐에르 페리뇽 수도사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삐에르 페리뇽은 앞을 못보는 사람이었으나 최고급 와인을 만들고자 하는 열정은 누구보다 뛰어났다. 그는 샴페인의 발효 과정에서 탄산가스의 압력으로 병이 터지는 현상을 바로 잡고 여러 가지 포도 품종의 블렌딩, 샴페인의 병 내 숙성 등 샴페인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샴페인의 아버지'로 불린다.

크리스탈 : '크리스탈'은 알렉산드로 2세가 자신이 마시고자 개발한 샴페인으로 특수 크리스탈 병에 담아 밖에서 안을 볼 수 있게 한 전설적인 '황제의 샴페인'이다.

뵈브 클리코 : 노란색 라벨로 사람의 눈을 끄는 '뵈브 클리코'는 샴페인 집안에 시집을 와 젊은 나이에 미망인이 된 뵈브 클리코(미망인 클리코)의 처녀성을 딴 샴페인이다. 뵈브 클리코는 특히 여성에게 인기가 높다. 미국의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에도 자주 등장한다.

볼랭저 : 전 세계 영화팬을 즐겁게 하는 영화, '007 시리즈'에는 꼭 등장하는 샴페인이 있다. 볼랭저(Bollinger)가 그것이다. 007 시리즈에서 제임스 본드는 이 샴페인을 항상 캐비어와 함께 즐긴다. 그 때문인지 샴페인과 캐비어는 좋은 마리야주로 영화팬들에게 각인됐다.

스푸만테 : 스푸만테는 이태리 샴페인으로 그중에서도 달콤하여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은 스푸만테 아스티(Spumante d'asti) 등이 잘 알려졌으며 가격대비 맛이 훌륭한 모에 상동은 그 대중성 때문에 가장 많이 팔리는 샴페인이다.

모에 상동 : 모에 상동은 전 세계에서 단일 생산량이 가장 많으며 저장 창고의 규모가 대단하다. 프랑스 혁명기에 모에 상동의 소유자가 나폴레옹과 친하여 가끔 나폴레옹이 이 양조장을 찾아오기도 했다. 나폴레옹을 기리고자 '모에 상동 임페리얼'이라는 한정판이 시중에 나오기도 한다.

마담 풍파두르는 "여자가 아무리 마셔도 추하지 않은 술은 샴페인뿐이다."라는 말을 했다. 사랑의 향기가 가득한 이봄, 하루 정도는 가족이 모여 앉아서 샴페인을 마시며 사랑을 더욱 깊게 함은 어떨까? 봄은 사랑의 계절이니까.



글_ 38기 구덕모 동문
(와인과 친구들 대표)

명품 인생을 만드는 투자의 법칙

사람은 누구든 풍요한 삶을 추구한다. 더 욕심을 내,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살려면 그만큼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 투자하고 있는가?



글 _ 31기 공한수 동문
(AMP 자문위원,
Big Dream & Success 원장)



씨를 뿌려야 수확할 수 있듯이, 인생에서도 투자해야 풍요로운 삶을 거둘 수 있다. 행복도 마찬가지다. 행복하게 살려면 우선 행복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자, 지금보다 발전하고자 투자를 한다. 마치 돈을 벌려고 주식과 펀드, 부동산 등에 투자하듯이 말이다. 자기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려면 자신만의 특별한 경쟁력을 만들어야 하고, 그러려면 평생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간혹 늦은 때라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나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이 원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다. 이를 잘 증명해 주는 한 예가 있다. 미국의 '레이크록'이라는 사람은 53세 나이에 맥도날드 1호점을 열었다. 그는 당시에 당뇨병과 관절염을 앓고 있었고, 담낭과 갑상선도 성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는 보통 사람 같으면 아픈 몸을 핑계로, 나이를 핑계로 퇴직을 준비하는 나이에 과감히 투자해,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맥도널드를 만들었다. '내 삶의 고용주는 바로 나'라는 생각으로 자기 인생에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에 그러한 성공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처럼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면서 너무 늦은 나이라는 것은 없다.

인생에서 또 중요한 투자 중의 하나는 자녀에 대한 투자다. 농사 중에 가장 어려운 농사가 바로 자식 농사라 하지 않았던가? 자식 농사를 잘 짓는 일은 힘들지만, 그 어느 투자보다도 가치가 큰 것이며 부모를 신나게 하는 일이다.

1947년 19세의 나이에 미국에 유학 간 전혜성 박사의 가족 이야기는 자식에게 투자한다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현대의 신사임당으로 불리는 전혜성 박사는 1929년생으로 이화여대 영문과 2학년을 마치고 전액 장학금을 받아 유학길에 올랐고 곧 고광림 박사와 결혼해 슬하에 4남 2녀를 두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자녀 6남매 중에서 5명이 하버드대를 졸업했으며, 1명은 예일대를 졸업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가족 8명의 박사학위가 무려 12개나 된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고광림은 정치학 박사와 하버드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교수, 주미 전권대사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인 최초로 하버드대 강단에 서기도 했다. 전혜성 박사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라도 입이 저절로 벌어질 정도다. 박사 가족은 이민사 100주년 기념식 때, 부부와 아들 두 명을 포함해 총 네 명이 '자랑스러운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동양계 자녀 교육에 관한 연구에서, 전혜성 박사 가족을 성공 사례로 삼을 정도다. 박사 가족은 소수민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녀에게 투자하면 가족의 영광까지도 따라온다.

당신은 어떤 일에 투자할 것인가? 당신은 당신 인생에 어떤 가치를 위해 투자할 것인가?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자신만의 강점을 찾아내 투자해야 한다. 또 투자를 결심한 일을 할 때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조금도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투자가 곧 당신의 미래 가치를 높여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 박사는 96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책을 쓰는데 열중했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처럼 나이는 인생을 위해 투자하는데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편 시간이 없어서 투자할 수 없다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얼마든지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다.

이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싶고 소위 말하는 명품 인생을 살고 싶다면 투자를 해라. 우리는 누구나 가슴에 품은 야망을 이루어 내겠다는 희망을 품어야 한다. 그 야망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촘음도 아껴서 인생에 투자해야 한다. 당신 전 인생을 걸고, 당장 투자해보라.



백제의 꿈과 한이 서린 백마강

白馬江

가족이 함께 어울려 가깝거나 조금은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도 좋겠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연이 있는 금강으로 발길을 돌렸는데 가서 보니 달리 부르는 이름, 백마강이 있다.

글·사진_ 이흥재 | 여행작가, 미술사학자

금강의 또 다른 이름 백마강의 전설

공주와 청양 경계를 따라 흐르는 금강 중류가 부여로 성큼 들어서면 '백마강'이라 부른다. 부여의 금강을 '백마강'이라 부르는 데는 당나라 소정방과 얽힌 전설이 있다.

고산사 밑 유람선 선착장 쪽에서 백마강 상류 쪽으로 보이는 바위섬이 조룡대, 곧 용을 낚은 바위라는 곳이다. 백제를 치러온 당나라 군사들이 백마강을 건너려면 맑았던 강에 갑자기 안개가 걷잡을 수 없이 자욱하게 끼어 도무지 건널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소정방이 백제의 용한 도사를 잡아 그 까닭을 물었더니, 의장왕이 밤에는 용이 되어 백마강에 안개를 피운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소정방은 바로 그 바위에 앉아 백마의 머리를 미끼로 해서 낚시를 드리워 용을 낚아냈다. 그러자 운무는 말끔히 걷히고 당나라 군사가 강을 건너 백제를 멸망시켰다 한다.

또 다른 이야기로 백제 부흥 운동과 연관된 전설이 있다. 소정방이 사비를 함락시켰으나 백제 유민의 부흥 운동이 끊이지 않았다. 알고 보니 무왕의 화신인 용이 강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란단다. 그래서 백마의 머리를 미끼로 낚시를 드리워 용을 낚았다 한다. 마침내 백제 부흥의 꿈이 완전히 사라졌는데, 이런 사연으로 백마강이라 불리어졌고 그래서 백마강은 백제인들의 꿈과 한을 상징하는 금강의 다른 이름인 것이다.



백제의 왕도 부여

부여는 123년 동안 백제의 왕도였다. 번성기에 사비의 인구는 가구 수가 13만호에 이르렀으나 지금은 3만여 명 밖에 안 된다. 백제가 망하고 당나라에 끌려간 백제인이 2만여 명쯤 될 것이라 하니 그때 상황이 얼마나 처절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당나라는 지금의 미국 정도의 중국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였는데, 당나라의 힘을 빌리지 않고 1:1로 신라와 백제가 맞붙었다면 우리 역사는 어떠했을까.

부여정림사지오층석탑

신라의 삼보 중 하나였던 80여m 높이의 황룡사 9층탑을 건립하는데 백제의 아버지가 총감독을 했고, 통일신라의 불국사 석가탑과 다보탑도 백제의 아사달 같은 석공들의 작품인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다. 그런 백제 사람들의 문화적 역량을 느낄 수 있는 몇 안 되는 백제의 유물 중에 부여정림사지오층석탑이 있다. 이 석탑은 익산 미륵사탑에 비해 단순하면서도 정돈되어 백제 석탑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드럽고 원만하면서도 장엄한 힘이 느껴진다. 부여정림사지오층석탑은 옛 백제 지역에 세워지는 백제계 탑들의 조형적 모델이 된다.

정림사터 탑은 8.33m나 되는 탑인데도 멀리서 보면 별로 크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갈수록 위엄 있고 장중한 힘이 느껴진다. 어느 정도 거리에서 사방을 빙 둘러보면, 부드러움과 힘이 동시에 느껴진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볼 때마다 새롭고 깊은 느낌을 갖게 하는 부여정림사지오층석탑의 맛은 백제 사람들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한다.

궁남지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 연못이다. '3월에 궁 남쪽에 못을 파고 20여리나 먼 곳에서 물을 끌어와 못 언덕에 수양버들을 심고, 못 가운데 섬을 만들어 신선들이 노니는 방장선산을 모방하였다'는 삼국사기의 내용이 바로 이 궁남지이다. 부여사람들은 무왕의 어머니가 이 궁남지에 살던 용과 관계하여 마동 즉, 무왕을 낳았다고 한다. 그러나 익산 사람들은 서동을 낳은 마룻지는 분명히 익산 금마에 있고, 궁남지는 본궁에서 조금 벗어나 위락과 연회를 겸할 수 있는 별장과 같은 곳이라고 한다.

은산별신제와 장승

백제가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에 처절하게 패망하고 부흥 운동 또한 완전히 괴멸된 뒤, 아득한 옛날 어느 해 여름, 이곳 은산 지방에 몹쓸 돌림병이 떠돌아 마을의 남자들이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가 사람들은 모두 공포와 불안에 떨었다. 어느 날 이 마을의 한 노인이 꿈을 꾸었는데, 늙은 장군이 나타나 자기는 백제의 장군이었으며, 많은 부하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억울하게 죽었다고 하면서, 자기와 부하들의 유골이 아직 땅바닥에 덩굴고 있으니, 그 뼈를 추려 장사를 지내주면 돌림병을 없애 주겠노라고 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유골들을 모아 위령제를 올려 주었더니 마을에 떠돌던 돌림병이 감쪽같이 없어졌다. 그 뒤 이곳에서는 3년마다 이른 봄 길일을 택해 위령제를 지내는데 이것이 은산 별신굿이다.

부여에서 20여리 떨어진 은산마을에서는 뒷산인 당산 남쪽 숲 속에 별신당을 모시고 있다. 별신당에는 소나무 아래 호랑이를 거느린 산신이 가운데에 왼쪽에는 칼을 거머쥔 복신장군이, 오른쪽에는 창을 겨누고 있는 토진대사가 모셔져 있다. 복신장군은 백제 30대 무왕의 조카이자 31대 의자왕과는 사촌간인 귀실복신이며, 토진대사는 도침대사가 후대에 잘못 전해



부여정림사지오층석탑



신성리 갈대밭



은산리 장승



졌을 것이다. 백제가 멸망한 뒤 복신과 도침은 일본에 가있던 왕자 풍을 임금으로 삼고 백제 부흥운동을 하던 중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복신도 풍왕과 사이가 나빠져 풍왕이 복신을 죽이고 말았다.

은산 별신제는 패망한 백제 장군의 넋을 위로하고 기리는 장군제로 백제 부흥군의 처절한 전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별신굿 열 사흘째 되는 날 시장을 중심으로 사방 들목에 장승을 세우고 장승제를 거행함으로써 별신굿이 그 막을 내린다.

충남 신성리 갈대밭

금강 하류는 충남 서천 한산면과 전북 익산 용포면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근래에는 군산과 장항을 잇는 금강 하구둑이 생겨 자동차로 건널 수 있다. 신성리 갈대밭이 있는 서천 한산은 '한산모시'와 백제 유민들이 나라 잃은 한을 달래려고 빚어 마셨다는 술인 '한산 소곡주'로 유명하다. 한산 소곡주는 한모금 입안에 머금으면 입안에 은은한 향기가 퍼지는 전통 민속주이다.

금강 하류의 신성리 갈대밭은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이병헌이 밤에 갈대밭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송강호와 마주치는 장면을 여기에서 촬영했다. 겨울이면 철새와 갈대밭이 만드는 겨울 분위기를 느끼려고 학생들,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이 즐겨 찾는 이곳, 신성리 갈대밭에서 너른 금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게다가 산책로 곳곳에 좋은 시구와 작은 정자를 만들어 놓아 운치를 더해준다.

갈대의 설화를 생각하며 산책로를 걸으면 더욱 분위기가 살아난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님프인 시링크스(syrinx)가 목신인 판(pan)에 쫓기다가 갈대로 변신했는데, 판이 이 갈대를 꺾어 피리를 만들어 그녀를 그리워하며 불었다는데서 갈대를 음악의 상징으로 여긴다는 이야기도 있다.

또 하나는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의 <변신이야기>이다. 당나귀 귀를 가진 미다스(Midas) 왕의 비밀을 안 이발사가 구덩이에 대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속삭이고는 흙을 덮고 후련해 하였는데, 구덩이 위의 갈대가 나부끼면서 이 비밀을 누설했다는 설화가 있다. 그래서 갈대는 밀고와 무분별의 비유에 사용되기도 한다. 이 봄, 신성리 갈대밭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보자.

광활한 대륙에서 사람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다

저마다 “소 꿈꾸었느냐”, “새해 복 많이 받아라”라는 인사가 바빠 오간 2009년 1월 8일 오후, 호주의 정치·교육·환경·복지문제 등을 연수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붉게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6박 7일 여정에 대한 기대와 호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몸소 느낄 수 있다는 설렘을 안고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했다.



글 _ 38기 채봉석 동문
(AMP 상임부회장,
서울시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드넓은 땅만큼이나
복지정책도 폭넓은 호주**

호주는 인구 1,931만 명, 면적은 7,682,300km²로 우리 한반도의 약 35배에 이르며, 세계에서 6번째로 큰 나라다. 1인당 국민소득 5만 불로, 복지 혜택이 잘 되어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정부에서 모든 비용을 지급하며, 고등학교까지 무료 교육을 지원한다. 65세가 되면 세금을 내든 안 내든 연금이 나온다. 이렇게 호주는 광활한 대륙만큼이나 폭넓은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9시간 40분 만에
호주의 3대 도시 브리즈번에 도착**

9시간 40분 만인 9일 이른 아침 6시 30분에 브리즈번 공항에 도착했다. 브리즈번은 퀸스랜드 주에 속하며, 우리나라의 17배 크기다. 호주에서 3번째로 큰 도시로, 1988년에 세계무역박람회(EXPO)를 개최하면서 세계적인 도시로 변모했다. 도시 전체에 2층 목조 가옥이 주류를 이루고, 바다에서 도심으로 수많은 강줄기를 만들고 있다. 그 때문에 교통수단으로 모터보트와 요트를 이용하는 등 브리즈번 사람들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자연과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호주

1월 10일, 세계적인 휴양지인 골드코스트에 있는 Q1 빌딩 전망대에 도착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백사장은 참으로 청결했다. 해변에는 음식점 하나 없었으며, 주변 자연과 잘 어우러진 깨끗한 건물들만 보였다. 게다가 모든 건물에서 사용한 물은 하수관을 통해 종말처리장에서 100% 처리돼 바다로 흘러보낸다고 한다. 그리고 호주에서는 처음 집을 살 때 7,000불, 다시 집을 살 때는 14,000불이라고 한다. 정부에서 우리 돈으로 2억 1천만 원을 무



상으로 지원하고, 부족한 돈은 대출받는다고 한다. 주택정책에서도 호주의 탄탄한 복지정책을 엿볼 수 있었다.

**창의력 교육,
스포츠타 즐기며 공부하는 학생들**

1월 11일, 아보카도 농장을 둘러본 뒤, BOND UNIVERSITY를 방문했다. 대학 내에 골프장이 있고 넓은 호수 사암도 있다. 건물은 고전양식의 건축물로 웅장함을 뽐내고 있다. 호주에서의 교육은 창의력을 중요시한다.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발표회를 여는 등 창의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자연과 함께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대학에 진학하면서는 자신의 전공을 찾아 열심히 공부한다. 우리나라의 교육 패턴과는 정반대다.

**호주역사의 태동,
아름다움까지 갖춘 도시 시드니**

전날 오후 3시경에 브리즈번에서 출발해, 세계 3대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꼽히는 시드니에 도착, 여장을 풀었다. 1월 12일 오전 7시,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에서 바라본 시드니의 전경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수도인 시드니는 호주 개혁의 출발점이 된 도시로 호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졌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더욱더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게 되었고, 전 세계 도시 평가에서도 연속 3년, 최고의 도시로 평가받았다.

연간 700만 명 이상 몰리는 오페라하우스

1월 13일, 아침식사를 마친 후 버스를

타고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로 향했다. 오페라하우스는 삼면이 바다에 접하고 있는데 그 독특한 외관은 커링 된 오렌지 조각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유네스코에도 등재된 오페라하우스는 눈길을 끄는 외관만큼이나 규모 면에서도 남달랐는데, 그곳에는 연간 7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린다고 한다. 오후에 찾은 BOND 해변에서는 신년 휴가를 즐기는 호주인들이 수영과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다. 다음으로, 찾은 GAP PARK. 이곳에서는 시드니 시내와 오페라하우스, 허버 브리지가 한눈에 들어오고, 남태평양의 전경을 조망할 수 있었다.

열린 마음으로 보고배운 6박7일의 여정

1월 14일, 6박 7일 호주 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연수는 호주의 선진 복지정책과 자연을 아끼고 보존하는 모습을 보고 배운 뜻 깊은 시간이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느낀 것은 정치·교육·환경·복지·기술 등의 분야에서 선진 문화를 배우려면 그곳에 가서 직접 봐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글로벌마인드로 생각하고 행동하려면 전 세계를 직접 체험해야 한다는 보편적 진리를 다시금 느낀 뜻 깊은 연수였다.



성공을 부르는 언어, 긍정의 주문을 외워라

아침 인사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선택의 순간,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방향키를 움직이는 결정의 순간, 이러한 순간순간 당신을 이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협력자는 다른 아닌 긍정적 사고방식이다. 긍정적 생각이 좋은 결과를 가져옴은 당신도 이미 알고 있을 터. 하지만 수십년간 쌓은 부정적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우선 언어습관을 개선해 부정적 사고방식을 무너뜨리자.

We Can Do It!

미국의 경제학자 피터 드리커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표현이며, 현대의 경영이나 관리는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좌우된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직장이나 조직 내부에서 말을 매개로 한 의사소통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말은 기호(언어학적인 의미)로서의 의미를 넘어, 교류와 소통의 의미를 담은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같은 의미라도 언어 자체가 긍정이나 부정이나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점이다.

잠재력을 이끄는 긍정의 효과

언어에 잠재된 에너지는 ‘긍정 에너지’와 ‘부정 에너지’로 나뉜다. 이 에너지는 당신이 ‘긍정적인 사고’를 하느냐 ‘부정적인 사고’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긍정의 생각은 알파



YES



파를 분비해 근육을 유연하게 하고 잠재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한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은 베타파를 분비해 근육을 경직시키고 잠재능력을 묻히게 한다. 이런 경향은 생각할 때보다 말을 내뱉을 때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회사에서 말 한마디 표현을 달리함으로써 결과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를 예로 들어본다.

“방 대리, OO해서는 안 돼. 절대 OO만은 하지 마.”
“방 대리, OO처럼 해 봐. OO가 좋겠어.”

전자가 “안 돼”라는 부정적인 말로 사고나 행동을 제한한다면, 후자는 “해 봐”라는 말로 사고나 행동을 더욱 촉진한다. 당신이 한 기업의 리더일 때 어떤 화법을 사용하는 게 효과적일 지는 불 보듯 뻔하다.

성공을 부르는 긍정 화법

지금까지 부정적 언어를 사용했다면 당장 내려놓고 긍정적 언어 습관으로 부정적인 습관을 극복해야 한다. 습관은 행동과 의지, 생각과 말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만들어진다.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습관이 미래를 만들고 인격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말과 바른 습관은 바른 인격을 만든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과 습관은 삐뚤어진 인격을 만든다.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영역은 그 외에도 많다. 따라서 습관을 아름답게 디자인하면 인간관계나 일을 할 때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한마디 말이 세상을 바꾼다

최초의 흑인 주지사 로저 롤스 _ 빈민가에서 태어나 뉴욕 최초의 흑인 주지사가 된 로저 롤스는 성공의 원동력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초등학교 시절 교장선생님의 ‘말 한마디’ 라고 답했다.

결정적 한마디

선생님은 어느 날 빈동대는 롤스의 손을 잡고 “긴 손가락을 보니 장차 뉴욕 주지사가 되겠구나!”라는 말을 건넸다.

마이크로소프트 제국 _ 마이크로소프트는 폴 앨런이 실의에 빠진 빌게이츠에게 던진 한마디 말 위에 세워졌다. 그 결과 오늘날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퍼스널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을 주름잡고 있다.

결정적 한마디

“아예 회사를 차리자. 우리는 할 수 있어.”

검색엔진의 성공신화 구글 _ 매일 6,500만 명이 접속해 35개의 언어로 2억 5,000만 건의 검색이 이뤄지는 세계 최대의 검색엔진 구글. 검색시장의 최강자 구글은 자료 검색을 포기하려던 세르게이에게 래리가 던진 한마디에서 시작됐다.

결정적 한마디

“차라리 새로운 엔진을 만들자. 할 수 있을 거야.”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긍정적인 언어란 격려와 성원, 관심과 사랑의 말을 뜻한다. 말 한마디, 몇초의 배려가 타인의 하루를 환하게 밝힌다. 더구나 따스한 말 한마디의 효과는 잠깐의 행복으로 끝나지 않는다. 때로 한마디의 말은 비전의 불꽃을 지피고 역사의 활로를 뚫는다. 한마디의 격려로 영웅이 탄생하고, 한마디의 칭찬으로 천국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말 한마디로 타인과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 긍정적 언어의 힘이란 이처럼 위대하다. 하루만이라도 마주치는 모든 이에게 칭찬을 건네 보자.

다이어리, 성공을 만드는 현명한 지혜

저는 새해가 되면 한해를 기록할 수 있는 다이어리를 구매합니다. 처음 다이어리를 구매한 것은 3년 전입니다. 쇼핑물의 근사한 어구에 현혹돼 충동 구매한 것으로 시작해 지금은 일정 관리뿐 아니라 정보 관리, 인맥 관리까지 두루 할 수 있는 멀티 플래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이어리를 구입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했고 심지어 다이어리를 구입하고도 활용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약속을 적어두거나 간단한 메모를 기록하는 용도로만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소소한 것들까지 빠짐없이 열심히 채워가는 제 모습을 보고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이어리를 쓰는 동안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반성하고 '내년에는 정말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저에게 다이어리는 단순한 스케줄러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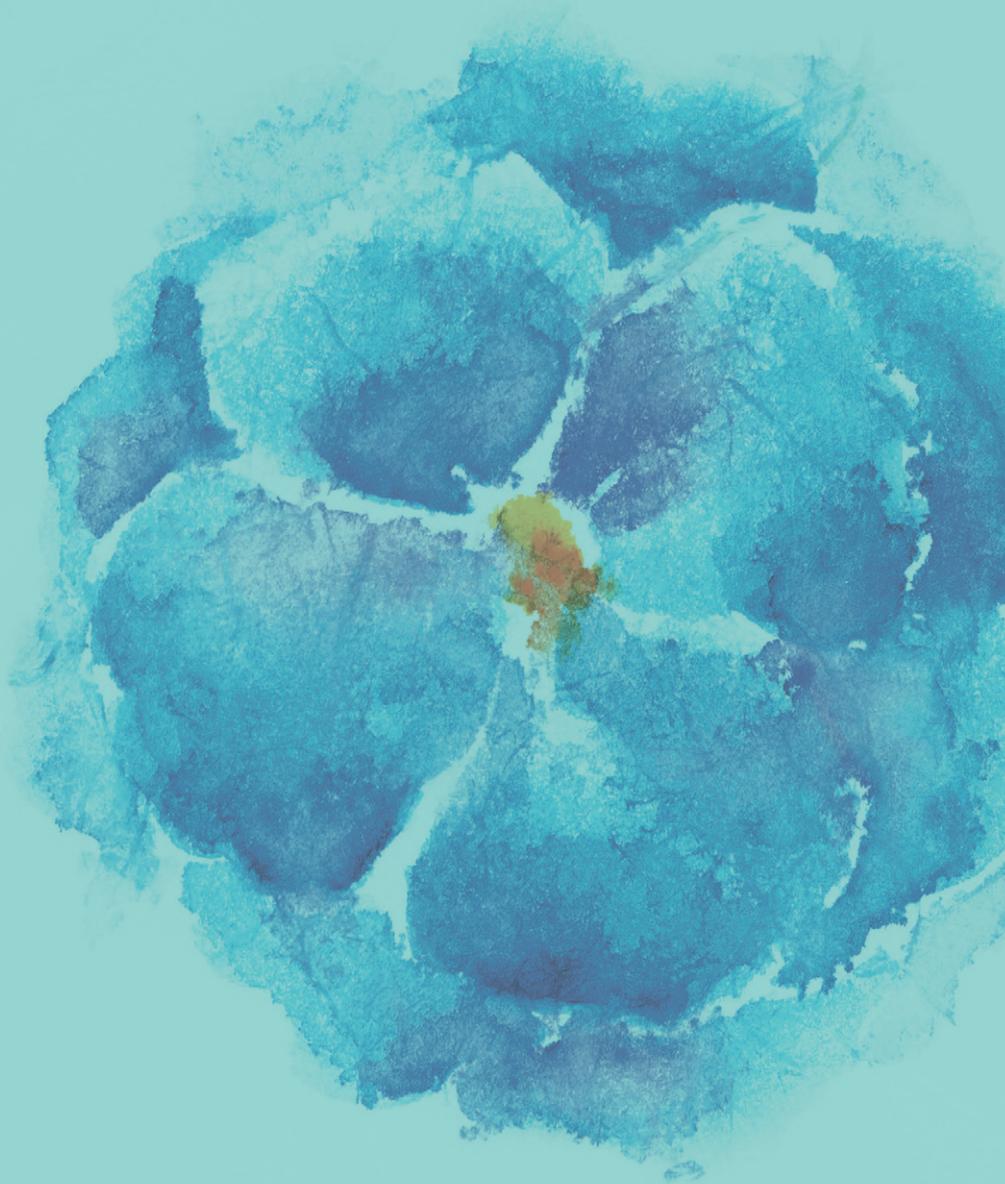
새해를 맞아 새 다이어리를 구입하고 뭔가 의미 있는 것으로 다이어리를 채워겠다고 다짐하는 저에게 어느덧 다이어리는 성공을 위한 필수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올해 구입한 다이어리에는 뭔가 새로운 일로 가득 채우고 싶습니다. 내년 이맘때, 다이어리를 보면서 '참 열심히 살았구나.'라며 웃음 지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작은 소망들로 나의 2009년을 가득 채우면 좋겠습니다.

tip. 나만의 다이어리 활용법!

다이어리를 100% 활용해 보세요 | 다이어리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양쪽 페이지에 한 달 일정을 넣을 수 있는 월간(monthly) 타입의 다이어리를 쓰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약속이 많은 사람이라면 주간(weekly) 타입의 다이어리가 요긴하다. 일반적으로 월간 타입과 주간 타입 특성을 함께 지닌 monthly-weekly 타입의 다이어리를 사용한다. 월간 캘린더에는 한 달 일정을 대략 적고, 주간 스케줄란에 약속 장소의 전화번호나 약도 등과 같은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적으면 편리하다.

포스트잇을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 다이어리와 포스트잇을 함께 사용하면 그야말로 큰 효과를 발휘한다. 스케줄란에는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일정들을 기록하고, 메모란에는 '누구에게 전화하기', '무엇을 구입하기', '점심 약속' 등과 같이 시간과 장소가 한정돼 있지 않아 자칫 잊기 쉬운 일들을 포스트잇 1장에 1건씩 적어서 붙여둔다. 이때 일의 중요도에 따라 순서를 정해 붙이면 더욱 효과적이다.

컬러펜을 사용하면 효과가 2배! | 다이어리에 뭔가를 기록할 때 컬러펜을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왼쪽 스케줄란에는 검은색 볼펜으로 일정을 기록하고, 오른쪽 메모란에는 일정을 소화하면서 잘된 것은 빨간색 볼펜으로, 잘못된 것은 파란색으로 메모한다. 이렇게 색 구분을 해서 메모하다 보면, 시간이 지난 뒤 이전 것을 보았을 때 파란색으로 적힌 사항을 중심으로 읽고, 그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다. 단순하게 일정만 적어 넣는 것이 아니라, 반성과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다이어리를 만든다.



Section
4

AMP People

Staff Greetings	80	박인서 사무총장의 신년인사
Alumni Movement 1	82	65기, 66기 동정 및 주소록
Alumni Movement 2	84	동문 동정
Notice Board	88	동문 게시판

AMP의 원동력, 동문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기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앞으로 우리 동창회를 위해 열심히 일할 각오로 사무총장직을 맡은 박인서입니다.

그간 우리 동창회의 일원으로서, 때론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때론 소극적으로 먼발치에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만, 막상 우리나라 최고의 조직, '연세 AMP 총동창회'의 사무총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니 설렘에 떨리기도 하고 앞으로 저야 할 책임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역대 사무총장님들의 노고에 빛을 더 할 수 있도록 신임 사무총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과 봉사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부족한 제가 열심히 일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입니다. 그 어떤 단체도 구성원의 참여와 애정 어린 관심 없이 긴 생명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연세 AMP 총동창회가 30여 년의 긴 역사를 지탱해 온 힘 역시 동문 여러분의 성원이 있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하며 저 역시 그 힘의 원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연세 AMP 총동창회가 막강한 조직력과 강한 응집력으로 단합하며 발전하도록 모든 동문님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손영식 총동창회장님 이하 집행부를 도와 어느 동창회보다도 그 어떤 때보다도 친밀하고, 즐거운 동창회, 더욱 강력한 AMP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저 개인이나 집행부 몇몇 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동문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의 성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바쁘고 힘드시더라도 모두 함께 동창회를 위해 힘써주시길 다시 한 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동문 여러분의 가내 평안과 웃음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3월
연세 AMP 총동창회 사무총장 박인서
(50기, (주)로알디엔엘 대표이사)

30여 년 전통을 이어온 연세 AMP, 65·66기 수료식

2008년 6월 18일 65기 동문 52명이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한데 이어, 지난 1월 29일 66기 46명이 5개월의 교육 과정을 마쳤다. 지난해 8월 29일 입학한 66기부터는 기존 4개월(만 16주) 과정이 아닌 5개월(만 20주)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65기

65기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이 2008년 6월 18일 상경대 각헌당에서 있었다. 65기 수료식에서 최우수상 수상은 박광진, 김두열, 박재현, 손운호, 신용욱, 윤기호, 이성천, 이용근, 전용열, 홍승환 동문이 차지했고 공근혜, 권재성, 김영철, 김찬희, 송미경, 임성재, 임영식, 한익준 동문이 우수상을 수상, 함종욱, 임강식, 이창익, 신용욱 동문이 최우수논문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전용열 기 회장이 학기 중 65기를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김태현 원장은 축사에서 '65기는 여느 졸업생보다 젊고 활동적인 기로 기억될 것'이라며, "우리 연세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한 것이 인생에서 가장 뜻 깊은 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영식 총동창회장은 "학교와 직장을 오가는 생활 속에서 학문을 탐구한 AMP 원생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우리 동창회의 일원으로서 미래로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며 동창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열 65기 회장은 "우리가 만난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헤어지게 돼 섭섭하다. 헤어짐은 또 다른 만남이자 새로운 시작인만

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자."고 말하며 참석해 주신 손영식 총동창회장과 임원진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66기

66기 최우수상 수상자로는 김민수, 박재규, 박주일, 이주섭, 이종한 동문이 선정되었고, 김광수, 김종길, 김치승 동문이 우수상을 받았으며 박낙원, 차재만 동문이 최우수 강사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김광수, 김준식, 복진환, 황현근 동문이 우수 강사상을 받았고 학기 중 기 회장과 사무국장으로서 활약한 이주섭 기 회장, 김광수 사무국장장과 한승기, 장경득, 이종한 동문이 공로상을 받았다.

66기 수료식에는 손영식 총동창회장과 김승제 명예회장을 비롯 송운택 수석부회장, 임항자 상임부회장, 현진왕 상임부회장, 원제철 상임부회장, 박인서 사무총장 등 상임이사들이 대거 참석해 그 어느 때보다 큰 박수를 보냈다. 이주섭 66기 회장 역시 66기를 위해 열정적으로 참석해 주신 동창회 임원진에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김태현 원장은 축사를 통해 "66이라는 숫자가 주는 이미지가 대단하다."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손영식 총동창회장은 박력 있는 목소리로 "연세인이 누굽니까"라고 물으며 "현재보다 더욱 발전할 미래를 위해 이 자리에 있는 만큼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꾸기 바란다."고 말했다.

65기와 66기 동문은 이제 우리 연세의 한가족으로서 동창회 발전과 화합의 큰 축을 담당하게 됐다. 앞으로 그들의 멋진 행보를 기대한다.



▲ 65기 입학식



▲ 66기 입학식



▲ 65기 수료식



▲ 66기 수료식

65기 주소록

성명	회사명	회사전화	비고
공근혜	공근혜갤러리 / 대표	02-738-7776	
곽광진	현대오일뱅크(주) / 상무	02-2004-3350	
권오국	(주)국일특수인쇄 / 대표	02-2277-9493	
권재성	한국서부발전(주) / 관리처장	02-3456-7706	
김규봉	교보생명보험(주) / 상무(AM사업본부)	02-721-2063	
김기조	(주)씨에프에스인터내셔널 / 대표이사	02-515-7561	
김두열	배규태세무회계사무소 / 상무이사	02-512-5837	
김영철	(주)한국씨티은행 / 본부장	02-2004-2240	
김윤재	디엘코(주), (주)동명디앤씨 / 회장	033-533-7376	
김은기	(주)삼화에이스 / 전무이사	02-523-2242	기 사무국장
김찬희	(주)아모레퍼시픽 / 상무	02-709-3970	
김형빈	미래에셋증권(주) / 상무	02-3774-1441	
박일제	굿모닝 신한증권 / 서부 영업본부장	02-785-5075	
박재수	두산인프라코어(주) / 상임고문	02-783-0390	
박재현	(주)이브릿지 / 대표이사	02-2664-7430	
박재홍	외환은행 / 상무	02-729-0103	
박헌신	LG화학 / 상무	02-2037-0070	
배문환	하나은행 / 연금신탁본부장	02-3788-5301	
변원호	현대증권(주) / 상근감사위원	02-761-0590	
서문용재	금융감독원 / 제재심의실장	02-3786-8410	
손순호	희망전자 / 대표	02-893-7291	
손장익	현대캐피탈(주) / 상무이사(경영지원실장)	02-3770-9620	
송미경	Li&Fung Korea / 이사	02-3441-6830	
신용욱	(주)휴세코 / 부사장	02-6900-7613	
위진호	(주)지노무억, (주)지노모터스 / 대표이사	02-335-0521	
유재수	(주)남강실크 / 대표이사	02-3444-5566	

성명	회사명	회사전화	비고
윤기로	(주)원풍 / 부사장	02-3665-5321	
이기동	현대증권 / 강북본부장	02-723-8291	
이병용	(주)자연과환경 / 대표이사	02-557-9830	
이성운	에스제이월드(주) / 사장	02-477-0600	
이성천	(주)빙그레 / 마케팅실장	02-2022-6311	
이영남	(주)휴비스글로벌 / 이사	02-2068-9312	
이용근	(주)다함비투비 / 대표이사	02-2626-8989	
이은정	(주)오트 에베뉴 / 대표이사	02-376-5616	
이진규	동양토탈(주) / 이사(경영지원본부장)	02-2192-6257	
이창의	조선일보생활미디어(주) / 대표이사	02-724-6700	
이형진	법무법인 둔산 / 변호사	02-3477-1466	
임광식	아시아나HDT(주) / 전무	02-2127-8108	
임성재	(주)두산전자BG / 상무	02-3670-8902	
임영식	(주)선진 / 대표이사	031-836-9000	
전용열	(주)서복상사 / 대표이사 회장	02-419-8700	기 회장
정진환	우리은행 / 부행장	02-2002-3410	
정태윤	SK에너지 / 상무	02-2121-6107	
정홍언	대상(주) / 상무이사	02-2657-5200	
주정현	(주)진학사 / 이사	02-2013-0502	
진명준	(주)KTFT / 상무	031-788-4411	
최형진	STX 중공업 / 전무	02-310-2014	
한동훈	대우조선해양(주) / 수석부장	02-2129-0985	
한익준	금토상사(주) / 상무이사	031-906-4777	
함중욱	우리투자증권 / 상무	02-785-5807	
홍승환	두성공영기술(주) / 대표이사	02-2671-0549	
황태영	디자인하우스 / 이사	02-2262-7200	

66기 주소록

성명	회사명	회사전화	비고
김광수	하나창업투자(주) / 대표이사	031-782-3290	기 사무국장
김기주	대한생명 / 상무	02-789-8060	
김동철	금융감독원 / 국장	02-3786-7690	
김명	한국암웨이(주) / 상무이사	02-3468-6200	
김민수	태원비엠씨(주) / 대표이사	031-709-4475	
김민용	(주)E&D / 대표이사	02-2029-7029	
김병두	현대카드/캐피탈 / 상무이사	02-3770-9615	
김승규	우리은행 / 영업본부장	02-937-3291	
김재숙	(주) 휴스존 / 사장	02-773-1918	
김종길	(주)한국아쿠르트 / 상무이사	02-3449-6614	
김종철	신한은행 / 본부장	02-6263-8242	
김준식	한화손해보험(주) / 상무	02-6366-7180	
김찬동	동국제강(주) 인천제강소 / 이사	032-760-5115	
김치승	대성산업(주) 건설부문 / 전무이사	02-3703-7903	
박광진	(주)하나은행 / 본부장	041-568-0660	
박낙원	교보생명 / 상무	02-721-2022	
박재구	(주)보광웨미리마트 / 전무	02-528-7071	
박주일	(주)정원씨앤에스 / 대표	02-3423-2119	
박헌준	현대종합상조(주) / 대표이사	02-368-7003	
박혜란	SK텔레콤 Brand전략실 / 실장(상무)	02-6100-1700	
배오식	아스공행(주) / 전무	02-2669-8511	
변희욱	STX에너지(주) / 전무	02-317-4001	
복진환	(주)아이넷스쿨 / 대표이사	02-2652-1616	

성명	회사명	회사전화	비고
송호경	(주)소학레저개발/그린월드호텔 / 전무이사	033-636-4000	
안중업	삼성증권 / 인사지원팀장	02-2020-6570	
엄세훈	플라즈마트 / 대표이사	042-934-2545	
오정식	한국씨티은행 / 본부장	02-3455-2092	
우승하	(주)리버트 / 상무	02-3480-8006	
원종규	코리안리재보험(주) / 이사	02-3702-6000	
윤태훈	고려신용정보(주) / 대표이사	02-3450-9025	
이상기	하나비SBC 생명보험 / 부사장	02-3709-7314	
이은희	(주)중소기업유통센터 / 상임감사	02-6678-9700	
이종한	(주)대동식품 / 대표이사	02-2661-3913	
이주섭	(주)삼희인스트루먼트 / 대표이사	02-3461-0797	기 회장
장경득	메가플렉스공업(주) / 대표이사	031-981-2381	
전남근	(주)한성기업 / 상무이사	02-3400-5010	
전희수	한국씨티은행 / 본부장	02-2004-1789	
차재만	한국마사회 / 경영지원본부장	02-509-1005	
한동철	(주)유비시스테크놀러지 / 대표이사	02-3462-6363	
한만영	엔에스씨정보시스템(주) / 대표이사	02-890-5656	
한상훈	한화석유화학(주) / 상무	02-729-2791	
한승기	한성마그네틱 / 대표	02-807-9333	
한용전	신한BNP파리바자산은행(주) / 상무	02-3777-9003	
허정국	DHL Exel Supply Chain / 대표이사	02-6220-1501	
황인천	(주)넥센 / 전무이사	02-595-9811	
황현근	(주)에이브랜드 / 대표이사	02-596-5654	

수상

취임

**22기 이재균 동문(주)SYG산업 사장
한국엘리베이터협회 회장 선출**

2008. 2. 12 오전 11시 한국엘리베이터협회 제22차 정기총회에서 이재균 동문이 제7대 회장에 선출되었다.

**22기 이정익 상임고문, 동탑산업훈장 수훈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총동창회장 취임**



이정익 상임고문(22기, 서광종합개발(주) 대표이사)이 2008. 6. 20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로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하였다. 이정익 상임고문은 2008년 12월 10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총동창회 제18대 총동창회장에 취임하기도 했다.

**25기 김태옥 등산회장 / 수석부회장
나눔이야기 및 세종대 교수 임용**

본 동창회 등산회장 및 수석부회장인 25기 김태옥 시호그룹 회장은 2008년 11월 28일 오전 국제라이온스협회 354-C지구가 주최하고 노년시대신문사가 주관하는 '제3회 2008 사랑의 안경 나누기' 행사에서 대한노인회에 5,000명분의 안경(시가 2억 원 상당)을 기증했다. 시호그룹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4-C지구를 통해 2006년부터 3년째 대한노인회와 함께 '안경



나누기 행사'를 펼치며 매년 노인 5,000명에게 안경을 기증하고 있다. 그간 1만 5,000명이 안경을 지원받았다. 이날 행사에서 김태옥 회장은 "사랑을 나누는 손길은 내민 사람이 더 행복한 것"이라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에 이웃사랑을 실천해 만족과 보람을 느끼는 기업들이 더 많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태옥 회장의 기부 원칙은 '틈새 기부'다. 정부와 대기업이 도와주지 못하는 일을 중소기업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경 기부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사회 공헌이라고 말하며 20여 년 동안 나눔 경영을 실천하는 김 회장의 틈새 기부는 비단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2003년에는 국제라이온스 협회와 함께 아프리카지역에 2억 원 상당, 2006년에는 몽골지역에 3억 원 상당 안경을 기증한 바 있다. 이런 인연 덕에 지난해 방한한 영호바이르 몽골 대통령도 김 회장 고객이 되기도 했다. 학문에 대한 열정도 남달라 1979년부터 수료한 최고경영자과정만 14곳에 달하는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AGMP 겸임교수 및 교수부장으로 임용 발령돼, 시호그룹을 이끌며 쌓은 생생한 현장 경영 노하우를 학생들에게 직접 전하고 있다.

**38기 이두철 상임고문,
'2008 대한민국 신뢰받는 CEO 대상'
(제조혁신 부문) 수상**



NEWS

본 동창회 6대 총동창회장을 역임한 울산의 향토기업 삼창기업(주) 회장인 이두철 상임고문(38기)이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2008 대한민국 신뢰받는 CEO 대상' (제조혁신 부문)을 수상했다.

이 회장은 세계적인 원전계측 제어기술을 보유해 대한민국의 가치를 드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됐다. 삼창기업은 원전 설비 전문업체로 1974년 창립했으며, 4개 부설 연구소를 통해 원자력 및 환경 분야에서만 22개의 신기술을 개발하고 45개의 특허를 취득했다.

50기 박인서 사무총장, 2008 한국의 아름다운 기업 대상 수상



박인서 사무총장(50기, (주)로얄DNL 대표이사)이 지난 2008년 10월 23일 지식경제부, 환경부, 미래기획위원회, 한국일보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08 한국의 아름다운 기업 대상 시상식'에서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경제적 성과와 사회 환경적 책임의 조화를 추구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2008 한국의 아름다운 기업' (투명 부문)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50기 김승제 명예회장, 연세대 경영학 석사 수여, 최고령 현직 CEO 졸업으로 주목받아

본 동창회 7, 8대 총동창회장을 역임한 김승제 명예회장 (50기, (주)이스타코 회장)이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수여 받았다.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은 지난 2008년 8월29일 연대대우관 각당헌에서 학위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MBA 및 경영학 과정을 마친 206명에게 석사 학위를 수여했다. MBA(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12개의 명문대학에만 있는 과정으로, 영어 강의 비율이 94%에 이르고 경영전략, 경영과학, 경영정보시스템 등 사례 위주의 연구 등 실무 능력을 중시해 권위 있는 학위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이날 2008 연세 석사 학위 수여식에서는 늦깎이 나이로 졸업한 김승제 회장이 주목받았다. 57세인 김 회장은 이번 학위 수여자 가운데 최고령이며, 대학학원 및 은광여고·은성여중 재단 이사장, (주)이스타코 회장 등을 맡은 현직 CEO이기 때문이다.

영어 위주의 강의와 1년 동안 48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 팍 찬 일정을 고려의 현직 CEO가 소화해 내기에는 벅찬 게 현실. 김 회장은 학점 이수와 연구 과제를 소화해 내고자 1년여 동안 틈틈이 학교 기숙사실에서 잠을 자며 원서와 씨름하고, 시험을 앞두고선 밤샘 공부도 마다하지 않았다. 김 회장이 학위를 수여 받을 때 동료 원생들의 환호와 큰 박수가 이어지기도 했다. 김승제 회장의 이러한 열정은 오는 3월 2일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NEWS

출판
행사

이전
오픈

38기 안종열 고문, LED 조명전시회 개최
38기 안종열 고문(주)중앙앤룩스 회장)이 일산킨텍스 G열 19호에서 2008년 6월 24일부터 6월 27까지 LED 조명전시회를 가졌다.

61기 이상경 চে육이사, 08 S/S Collection과 Zoy Brand story Value 선 보여
61기 이상경 চে육이사(주)해성물류 대표이사)의 Zoy Flagship store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08 S/S Collection과 Zoy Brand story Value가 2008. 3. 28(금)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9-2 E&P 타워 1층에서 개최되었다.

정덕환 에덴 복지재단 창립 25주년 기념행사
중증장애인 직업 재활의 선도 역할을 담당해 온 '에덴 복지재단'이 2008년 11월 25일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창립 25주년 기념행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정덕환 이사장은 2009년에도 25세의 청년 정신을 바탕으로 중증 장애인 직업 재활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임을 약속했다.

54기 이건설 정보이사, 안경점 Cheongdam Hill Shop 개업
54기 이건설 정보이사(57기, (주)다이안옵티컬 대표이사)가 2008년 5월 7일 안경점 Cheongdam Hill Shop을 개업했다.

55기 안중기 상임부회장, 하이트호프 미아본점 오픈
55기 임중기 상임부회장이 2008년 8월 8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프렌차이즈 하이트호프 미아본점을 오픈하였다.

이덕수 동문, 학습용 영어신문 라인업 완성 - 영어전문기업으로 성장 가속화
(주)타임스코어 회장 이덕수(www.timescore.co.kr)의 영어신문 틴타임스(www.teentimes.org)와 키즈타임스(www.kidstimes.net)는 '영어는 영어로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소신으로 2000년 10월에 창간되어 지금까지 국내 청소년 영어신문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대학생 대상의 월드타임스(www.worldtimes.co.kr), 2009년 2월에는 유치-초등 저학년 대상의 킨더타임스(www.kindertimes.co.kr)를 창간하여 유치-초등-중고등-대학생을 아우르는 학습용 영어신문의 라인업을 완성하였다.



더불어, 영어신문 콘텐츠를 다양한 부가 상품으로 개발한 서비스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영어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를 동시에 완성할 수 있는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타임스코어의 이덕수 회장은 "2009년에는 신규사업 확대를 통해 영어 전문 기업으로서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S

연세 AMP 총동창회 사무실 개소

33년 역사를 자랑하는 연세 AMP 총동창회가, 지난 2008년 6월 4일 제9대 집행부 출범을 앞두고 서울 마포구 용강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개소식을 했다.

이날 이전한 사무실에서는 김태현 경영전문대학원 원장과 손영식 총동창회장, 김승제 명예회장, 김영택 골프회장, 안종열 상임고문 등 임원진과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이 거행되었다. 김태현 원장은 “마포 사무실을 발판삼아 앞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동창회관 건립을 기대한다.”며 진심 어린 축하와 격려를 잊지 않았고 손영식 총동창회장은 “동창회 사무실은 동문 비즈니스의 장으로서 동문 모두의 공간이 될 것이며, 역대 다섯 명의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여러 임원진의 헌신과 노력으로 마련된 발판인 만큼 후배들도 선배들의 노고와 봉사 정신을 받들어 우리 동창회의 화합과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나아가 우리 동창회 건립을 위해 모두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사무실에 들어갈 집기 및 물품은 김승제 명예회장, 이정익 상임고문, 김동주 상임고문, 김영택 골프회장을 비롯하여 전영열 65기 회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동문의 협찬품으로 꾸며졌다. 동창회 사무실은 5호선 마포역 1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있다.



축! 연세 AMP 총동창회 사무실 개소식
~ 성원하여 주신 동문님 ~

품 목	기수	이름
사무실 의자	167기	김윤배
컴퓨터	227기	이정익
역대 회장 사진 및 액자	337기	김재환
정수기, 선종기	387기	안종열
원형 테이블	397기	김동주
에어컨	437기	김영택
대형 그림	437기	김영택
높은장	477기	원재철
회장실책상, 의자	507기	김승제
냉장고	507기	정용준
사이드테이블, 쇼파테이블	527기	조경수
컴퓨터	547기	송효준
회의실 테이블	547기	최덕현
전환기	547기	이건행
서류함 및 직은장	587기	이세형
회의실 의자	617기	이정희
디지털카메라	637기	노재섭
사무실 책상	637기	이해동
원형 테이블 의자	647기	민영규
회장실 쇼파	657기	전용열

• 특별협찬 •
칼라레이저프린터 교학부장 안일봉

연세 AMP 총동창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www.yonseiamp.co.kr



2004년 개설되어 한차례 개편 운영하던 홈페이지를 제9대 집행부 출범과 더불어 전면 개편하였다. 역대 총동창회장의 노고를 깊이 새기고, 더불어 세계로 발돋움하기 위한 2008 모교의 새로운 슬로건인 'YONSEI, the First & the Best'를 메인 페이지에 조화롭게 디자인했고, 동창회 홍보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도록 꾸미는 등 보다 깔끔하게 동창회의 현황을 구성했다. 또한 각종 행사 안내, 경조사 등 동창회의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게재할 내용은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된다.

Notice Board



결 / 혼 / 을 / 축 / 하 / 합 / 니 / 다

18기 김영수 부회장(양우칼라 대표) 차녀 정림 양 결혼

일시 : 2008. 10. 11(토) 오후 4시
장소 : 크라운호텔 1층

20기 오병훈 동문(주)루튼 회장 장남 지구 군 결혼

일시 : 2009. 3. 6(금) 오후 6시 30분
장소 : 그랜드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

31기 박순배 동문(세연약국 대표약사) 장녀 고은 양 결혼

일시 : 2009. 2. 21(토) 낮 12시
장소 : 오윤교회 1층 그레이스홀(서울 강동구 성내3동)

34기 이상용 부회장(경일정밀(주) 대표이사)

장녀 진영 양 결혼
일시 : 2008. 4. 12(토) 오후 3시
장소 : 강남 웨딩컨벤션 5층 컨벤션홀

38기 노방환 동문 (디지털엔씨(주) 자문)

일시 : 2008. 6. 21(토)
장소 : 강남 웨딩컨벤션 5층

38기 노귀영 동문(창대섬유 대표이사) 장녀 지현 양 결혼

일시 : 2008. 12. 26(금) 오후 6시
장소 :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3층 예식홀

41기 조시영 고문(대창공업(주) / 대표이사)

차남 정호 군 결혼
일시 : 2009. 3. 22(일) 오후 5시
장소 : 코엑스 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

42기 박광환 동문(우창산업 대표이사) 장남 진원 군 결혼

일시 : 2008. 4. 6(일) 오후 3시
장소 : 강남 래팜 웨딩하우스

42기 이영재 상임부회장(주)목림인터네셔널 대표이사)

아들 정욱 군 결혼
일시 : 2008. 11. 1(토) 오후 3시
장소 : 삼성동 웨딩의 전당 2층 토포즈홀

43기 조재둔 동문(주)둔산건설 대표이사)

장남 장호 군 결혼
일시 : 2009. 2. 19(목) 저녁 6시
장소 : 엘타워 그랜드홀 7층

44기 장세강 동문(주)동방 대표이사) 장녀 운영 양 결혼

일시 : 2008년 11월 29일(토) 오후 6시
장소 : 용산구 한남2동 소재 그랜드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

49기 양준호 조직이사 (성도자원(주) 대표이사)

장녀 혜정 양 결혼
일시 : 2008. 12. 14(일) 오후 1시
장소 : 서울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

50기 김승제 명예회장(주)이스타코 회장 /

국암학원 재단이사장) 장남 동현 군 결혼
일시 : 2009. 2. 17(화) 오후 6시 30분
장소 : 그랜드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

50기 김용근 부회장(영신엠텍 대표이사)

장녀 성애 양 결혼
일시 : 2008. 10. 18(토) 오후 1시
장소 :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51기 김영훈 동문(세무법인 드림/ 고문)

장남 휘정 군 결혼
일시 : 2008. 11. 15(토) 낮 12시 30분
장소 : 오월의 정원(지하층) 하우스웨딩홀

59기 김용남 동문(현대백화점 무역점 상임감사)

장남 인교 군 결혼
일시 : 2008. 8. 30(토) 오후 5시 30분
장소 : 공항터미널예식장 3층 갤러시홀

64기 권병국 부회장(성부그룹 회장)

장남 기영 군 결혼
일시 : 2008. 10. 21(화) 오후 6시 30분
장소 : 그랜드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

삼 / 가 / 조 / 의 / 를 / 표 / 합 / 니 / 다

16기 유영경 동문 (한우세무법인 대표) 부친상

별세일 : 2008. 10. 26(일)
빈소 : 전남 광양 장례식장

20기 김정배(주)수성 대표이사) 동문 별세

별세일 : 2009. 2. 12
빈소 :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

33기 박종현 동문 (대영식품(주) 고문) 별세

별세일 : 2008. 12. 16(화)
빈소 :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영안실 15호

38기 박삼복 상근부회장(에어파크(주) 대표이사) 모친상

별세일 : 2008. 6. 21(토) 오전
빈소 : 인천 나은병원 장례식장 2분양실

40기 김민영 동문(주)국보 대표이사)

별세일 : 2009. 2. 25(수)
빈소 : 부산동아대학 영안실 1호실

42기 김찬근 부회장(주)희훈 대표이사) 부인상

별세일 : 2008년 11. 29(토) 오전
빈소 : 강남 성모병원 영안실 특 2호

42기 허진 이사 (뉴월드모던주택 부사장) 모친상

별세일 : 2008년 11. 29(토) 오전
빈소 : 신촌 세브란스병원 영안실 11호

44기 김대웅 사업이사(MBO산업 사장) 부친상

별세일 : 2009. 2. 7(토)
빈소 : 서울아산병원 영안실 35호

46기 정영구 동문 (성신속속(주) 대표이사) 부친상

별세일 : 2008. 12. 26(금)
빈소 : 현대아산병원 6호실

52기 김영호 동문(주)한영푸드 대표이사) 모친상

별세일 : 2008. 6. 30(월)
빈소 : 일산 백병원 영안실 5호실

59기 고문중 부회장(주)평화유통 대표이사) 빙모상

별세일 : 2009. 2. 23(월)
빈소 :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장례식장 5호실

63기 이태길 동문 장인상

별세일 : 2008. 9. 4(목)
빈소 : 광주광역시 그린장례식장

65기 홍승환 동문(두성공영기술(주) 대표이사) 부친상

별세일 : 2008. 9. 11(목)
빈소 : 남양 동수원병원 영안실

65기 권오국 홍보이사(주)국일특수인쇄 대표이사) 모친상

별세일 : 2008. 5. 27(화)
빈소 : 포항 E병원

회 / 사 / 주 / 소 / 변 / 경 / 안 / 내

3기	이부섭	(주)동진세미캠 회장 / 서울 마포구 상암동 1601번지 KGIT센터 23층	02)325-9451
5기	유재필	유진기업(주) 회장 / 서울 종로구 수성동 51-8 거양빌딩 9층	02)3704-5402
5기	이순복	숙진 회장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1 제2동 106호	02)543-3970
7기	권준상	세계로열린선교회 목사 / 경기 남양주시 지금동 234-1	
10기	유근풍	서울지류유통(주) 명예회장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0-2번지 성업빌딩 5층	02-544-9593
10기	최병재	(제)국가유공자장학재단 이사장 / 서울 서초구 잠원동 8-9 동림빌딩 4층	02-517-8835
15기	조창식	한샘도무스디자인(주) 회장 / 서울 서초구 방배동 883-2번지 제우피스빌딩8층	02)3476-3294
16기	조성대	전국통운(주) 대표이사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6번지 한국트럭터미널 151호	02-570-2117
16기	천홍진	남덕역학연구원 원장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3 라이프오피스텔 616호	02)783-0107~8
17기	정성웅	서일철강(주) 대표이사 /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3-1 서교타워 1407호	02)337-3694~5
17기	한세기	(주)성호철관 대표이사 / 전북 익산시 팔봉동 864번지	063-835-3526
22기	한성건	(주)에스이노텍 대표이사 / 서울 금천구 가산동 345-9번지 SK트윈타워 A동 205호	070-7093-0970
26기	최현열	회장 / 서울 강남구 신사동 666-14 배강빌딩 705호	02-553-4567
27기	이기훈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서울 은평구 응암동 113-26호	02)387-3747
28기	곽창근	(주)삼정퓨처테크놀로지 부회장 /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19 SJ테크노빌 1013호	02-3397-0250
30기	조남호	(주)한진중공업 회장 / 서울 용산구 갈월동 103-17	02-2006-7000
31기	이종생	한국경영교육컨설팅 대표 / 부산 동구 초량동 1204-13 성산빌딩 503호	051)465-9461

31기	장용섭	파로스컨설팅 이사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257-8 휘성빌딩 307호	02-2634-1945
32기	이방희	(주)삼익가구 대표이사 / 인천 남구 도화동 744-13	032)576-0331
34기	손삼수	(주)웨어밸리 대표이사 / 서울 마포구 상암동 1605번지 누리꿈 스퀘어 연구개발타워 6층 웨어밸리	02)743-4910
34기	이경순	(주)상원콘크리트 회장 / 서울 서초구 양재2동 269번지 상원빌딩 2층	02)538-9321
35기	이성욱	(주)삼천리알이 대표이사 / 서울 광진구 군자동 세종대학교 총무관 308 A	02-466-6632
36기	김형태	(주)에코셋 대표이사 /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97-45 흥영빌딩 2층	02)3018-5000
37기	이수호	SH무역 회장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7-8 신원프라자 607-1호	031-483-8908
38기	김주익	(주)우담종합건설 회장 / 서울 서초구 방배2동 964-13 비전빌딩 3층	02)521-1258
38기	박삼복	에어팩스(주) 회장 / 경기 시흥시 신천동 774번지 우명프라자 206호	031)404-6081
39기	김상열	(주)LK 회장 /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3가 58-2 LK사옥	02-2630-4702
39기	유인학	세계거석문화협회 총재, 한양대학교 총재 교수 / 서울 서초구 방배4동 866-20 방배비오빌 417호	02)2123-9595
39기	이승룡	청도건설(주) 대표이사 / 경기 화성시 반송동 107-8 9층	031)8003-7700
40기	권기찬	(주)웨어편인터내셔널 회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52-17 웨어편빌딩 7층	02)3218-5980
40기	김영배	젠스리무역 대표이사 / 서울 금천구 가산동 429-1 뉴티캐슬 1115호	02-6277-3535
40기	손일권	밝은미래정형외과 이사장 /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204-4번지 2층	031-969-3900
40기	유경열	(주)영우농동식품 대표이사 / 서울 송파구 문정동 40번지 F빌딩 4층	02-3403-9600
40기	조은상	(주)영교 대표이사 / 경기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출판정보단지 532-3 영조빌딩	031-956-8800
41기	장동국	현대그린테크(주) 회장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89-7 태광빌딩 6층	02)586-7586
41기	조규범	상구건설 대표이사 /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373-29 202호	031-974-1061
42기	박호경	(주)국제쓰리시물산 사장 / 서울 용산구 갈월동 85-3 남영빌딩 205호	02)792-9498
42기	신동관	(주)신안메이드, 대진HE-TECH(주) 상임고문 /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132번지	02-790-7005
42기	오종직	(주)덕원플랜트 대표이사 / 서울 구로구 구로동 95-2	02-851-8080
42기	홍종인	SKC선화회 대표이사 /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 오피스빌딩 1112호	02-566-6371
43기	남판우	남양에드 대표이사 /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3-1 거평타운 824호	02)517-0788
43기	신필렬	대한육상경기연맹 회장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8-12번지 대한생명빌딩 12층	02-2023-4900
43기	이원호	서원건설(주) 대표이사 /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952-13 401호	02)706-3811
43기	이인복	(주)정산생명공학 대표이사 / 서울 중구 장충동117 정산생명공학	02-2285-0345
43기	이정석	(주)우리별텔레콤 대표이사 / 경기 김포시 운양동 1077-2	031)980-7500
43기	임인배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 서울 강동구 명일동 46-2번지 한국전기안전공사	02-440-2000
44기	권재석	(주)RPS솔루션 대표이사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4-8 포커스빌딩 301호	02-583-8272
44기	박광훈	로지스텍코리아 사장 / 서울 강남구 대치4동 마루터8로 PNL빌딩 501호	02)541-8117
44기	신원길	세보상공(주) 회장 /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36-14 반도빌딩 915호	051-462-6888
44기	조성대	(주)아나패스 대표이사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65-70 전문건설회관 14층	02-6922-7400
45기	김선철	(주)신광하이테크 대표이사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 539-2번지	031)986-9116
46기	김형태	(주)서전인테리어 부회장 /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8-13 4층	02)541-3141
46기	유덕종	(주)NTI국제운송 대표이사 / 서울 마포구 서교동 368-22 서문빌딩 6층	02)711-9700
46기	주정근	정우합섬(주) 대표이사 /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7-11 유니온센타 513호	02)501-4625
47기	구경신	(주)신진토개발 회장 / 서울 도봉구 창동 797번지	02)2215-5079
47기	김지문	(주)KK 컨설팅 대표이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6 한국도심공항터미널 514호	02-551-0209
47기	윤석무	SNJ 대표 / 서울 중구 무학동2번지 성지빌딩 B1 SNJ	02-2236-0477
48기	기형도	(주)에이스미디어테크 대표이사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3 국제전자센터 1417호	070-7585-7777
48기	김기영	삼공전기공업(주) 대표이사 / 경기 화성시 장안면 서포리 732-21	031-831-5700
48기	박명수	(주)대청공영 대표이사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운암빌딩 2층	042)636-0057
48기	임경록	극동포럼 회장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55-4 역삼-편한세상아파트 111동 901호	02)3272-2852

48기	임원빈	한국NCR(주) 대표이사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5 일신빌딩 5층	02)3279-4560
48기	정일용	(주)디풍 대표이사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0-12 2층	02)561-2073
49기	김정도	ECC종합건설(주) 대표이사 / 경기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산11-1번지	031-815-7898
49기	박주환	(주)호진기업 대표이사 / 인천 남동구 고잔동 665-199블럭 2롯데	032)818-0787
49기	안효채	ERIC손해보험중개(주) 대표이사 / 서울 중구 태평로2가 69-5 삼정빌딩 601호	02)779-6381
49기	이규균	(주)영호 대표이사 /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평내패션타운베이직	02)3446-2973
49기	조태규	천보산업(주) 대표 / 대구시 북구 검단동 753-3	053-382-8848
49기	현창수	승일제관(주) 대표이사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8-19 SNW빌딩 6층	02-2186-1200
50기	강진원	피셔코리아(주) 대표이사 / 서울 금천구 가산동 481-11 대릉테크노타운 8차 503호	02)467-0022
50기	김대성	(주)이안PC 대표이사 / 서울 금천구 가산동 371-51 한국전자협동빌딩 본관 4층	070-7116-2670
50기	김정영	비전페이퍼(주) 사장 / 서울 강서구 등촌동 631번지 두산위브 1319호	02)2668-6203
50기	김태균	아시아신용정보(주) 사장 / 서울 강서구 등촌동 683번지 인방빌딩 5층	02)6355-1403
50기	박철원	동양메이저(주) 대표이사 / 서울 구로구 구로동 46-5번지 한스타워 동양메이저 (주) 섬유사업부문 4층	02-791-1003
50기	박철현	DI KOREA 대표이사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6-1 부천테크노파크 쌍용3차 104동 210호	032)511-8093
50기	반병오	(주)브그인터내셔널 대표이사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66-19 DFD빌딩 4층	02)518-1133
50기	조승렬	동우기획 대표이사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0-26 디오빌 1305호	02)2193-6222
51기	김성혁	(주)Lifenza 대표이사 /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1467-2 관보프라자 203호	02)565-6112
51기	김정기	(주)의약정보통신, (주)리더스터디 대표이사 / 서울 도봉구 창4동 5번지 다모아빌딩 602호	02-904-8385
51기	안승민	솔로피아(주) 대표이사 / 서울 영등포구 문래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411호	02-3439-1250
51기	은희선	(주) 대화자동차공업사 대표이사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법곡동 751-9	031-919-8333
51기	정휘복	가교정보(주) 대표이사 / 서울 송파구 방이동 51-2 청호오피스텔 1406호	02)414-1458
51기	조성정	(주)세보엠이씨 부사장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5-9 인산빌딩 5층	02-2406-7901
51기	최진수	(주)아이스타TV 대표이사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15-45	02-5430-100
52기	곽수정	한미기초개발 대표이사 / 서울 서초구 내곡동 1-2036	02)577-4530
52기	류해필	SK경영경제연구소 전무 / 서울 중구 태평로1가 84번지 파이낸스빌딩 4층 sk경영경제연구소	02)3773-8338
52기	박기현	(주)아이엔소프트 부사장 /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60번지 (주)아이엔소프트 2동 307호	02-6309-5746
52기	박종수	(주)나우테크, (주)유아이디 대표이사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5-25 포커스빌딩 4층	02)508-4877
52기	이만희	교보증권(주) 부장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교보증권빌딩 영업부	02-3771-9025
52기	정권삼	(주)로드앤스태프 대표이사 /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82-13 대릉포스트타워 2차 10층 1001호	02-2082-0371
52기	조경수	(주)OFT 대표이사 /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3-15 시몬빌딩 402호	02)543-1015
52기	조영길	I&S 법률사무소 대표 /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07-34 한신인터밸리 동관 19층	02-2183-2700
52기	허남철	하나로텔레콤 경영지원본부장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7번지 아시아원빌딩 8층	02-6266-6200
53기	김대기	한솔제지(주) 부사장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1 한솔제지22층	02-3287-6040
53기	김철호	DCIF Korea(주) 대표이사 / 서울 마포구 동교동 205-17 동서빌딩 503호	02)3142-0725
53기	문건수	비에스엘시스템 대표이사 / 서울 양천구 신정3동 1189-1 (주)비에스엘 시스템 양천구 대리점	02-2607-3686
53기	송규천	(주)미동양행 대표이사 / 서울 중구 순화동 151번지 포스코 더 샵 A동 404호	02)757-3661
53기	송형석	원더랜드(주) 대표이사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7-1 교대벤처타워1층	02)517-0533
53기	이제현	(주)다인바이오 대표 / 서울 금천구 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 B동 606호	02-2026-3530
53기	이현승	(주)유니웰 대표이사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 서관 1105호	02-2183-2390
53기	허정범	현대하이카다이렉트 대표이사 사장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93-2번지 현대해상강서서옥 12층	02-2628-2001
54기	김진홍	(주)디자인블루 부사장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43-8번지 대호빌딩 지하층	02-511-3814
54기	박순이	(주)에코시스 대표 / 충북 음성군 맹동면 봉현리 377 (주)에코시스	043-882-3458
54기	박 원	(주)부민국제퍼먼텍 대표이사 회장 / 인천 계양구 직전동 853-38 203호	032)551-9491
54기	송호준	(주)제이비에스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7-23 성도빌딩 5층	02)6205-5700

54기	양한영	(주)실트론 부사장 / 경북 구미시 시미동 164-2번지 실트론 3공장	054-470-8280
54기	윤병섭	(주)바이드림 대표이사 / 서울 양천구 목동 917 현대41타워 21층 15-1호	02)2168-3003
54기	이강선	평택항만(주) 상무이사 / 경기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평택항만(주)	031-612-0900
54기	이찬욱	코아에프지(주) 회장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2 신영증권빌딩9층	02)6230-5000
54기	장남기	(주)링크서플라이 대표이사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327 고암빌딩5층	02-3667-6300
55기	김국환	수원에너지(주) 전무이사 / 광주 광산구 수완동 434번지 수원에너지(주)	062)959-0095
55기	김진국	강남밝은세상안과 대표원장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7-20 아랍타워빌딩 14층	02-501-8600
55기	김태영	김스개발그룹 대표이사 / 서울 강남구 청담동 68-5 신영빌딩 3층	02)3393-8078
55기	김형섭	(주)델리스 대표이사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35-5 델리스빌딩 A동 8층	02)430-7171
55기	김형수	(주)암다코리아 대표이사 /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2-5 태영빌딩 10층	02)3775-0090
55기	박원희	우리투자증권 상무 / 서울 마포구 도화동 292-20 도원빌딩 3층	02-706-3005
55기	양화승	하이플러스카드(주) 대표이사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4-1 코리아디자인센터 311호	031-776-5555
55기	이현우	(주)디노번 대표이사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6 기계회관 신관7층	02)3665-6234
55기	이 환	(주)GLDC 대표이사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4-1 주삼빌딩 3층	02)540-7290
55기	임종기	경희교육(P(주) 대표 / 서울 중구 필동2가 84-14 송원빌딩 201호	02)2263-6043
55기	정항채	(주)VICURUS 대표이사 부사장 /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24번지 공주빌딩 3층	02-556-9351
55기	최동현	(주)성지라미텍 대표이사 / 인천시 서구 가좌동 602-3	032-572-1800
56기	신양주	(주)프로에스컴 대표이사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빌리 24 서관 20층	02-2183-0118
56기	엄홍식	(주)DCN미디어 대표이사 / 강남구 신사동 525-13번지 진우빌딩2층	02)547-7344
56기	임양운	변호사임양운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7-4 서호빌딩4층	02)3482-5700
57기	곽정훈	(주)인터블로 대표이사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3번지 조양빌딩 6층	02-2051-3330
57기	김경립	CJ제일제당 부사장 / 서울 강서구 가양동 92번지 바이오사업본부	02-3660-0000
57기	김종문	(주)인터맥스 대표이사 / 서울 서초구 방배동 807-3 다빈빌딩 3층	02)599-6688
57기	박근식	(주)아시아나IDT 대표이사 /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116번지 세안빌딩 18층	02-2127-8333
57기	신종식	우리신용정보 감사 / 서울 중구 수표동 27-1 동화빌딩 3층	02)2262-5805
57기	신종현	메코리인덱스먼트 대표이사 / 서울 중구소공동 110번지 한화빌딩4층	02-3705-4947
57기	온정권	(주)유창건설 대표이사 / 서울 양천구 목3동 603-4번지 유창빌딩 5층	02-2640-4671
57기	이관훈	CJ 제일제당 부사장 /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00번지 CJ 빌딩 11층 경영지원실	02-726-8400
57기	한현재	현대증권 부사장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4 현대증권 빌딩	02-782-6887
58기	강민구	오뉴중합건설(주) 회장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16-2 천누리빌딩 5층	031-966-0332
58기	강삼영	아람인테크 회장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17-17번지	02)552-1919
58기	김일선	하이디스테크놀로지(주) 사장 / 경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36-1번지	031-639-6401
58기	김태수	(주)태일교역 대표이사 / 서울 마포구 상암동 1654번지 DMC이안상암1단지 1202호	02)333-7888
58기	류한구	(주)팍트라로지스틱 대표이사 /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31 2431빌딩 11층	02)3217-8300
58기	이철희	한국건축조형미술연구소 소장 / 서울 강남구 청담동 2-4 유성빌딩 3층	02)543-0630
58기	주호덕	미라클공영(주)대표이사 /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77-5 미라클공영(주)	031-278-7052
59기	남윤성	할로커뮤니케이션즈(주) 대표이사 / 서울 마포구 합정동 426-12 EK빌딩 2층	02)3141-0114
59기	배성일	(주)리엔코 인베스트먼트 상무이사 / 서울 강남구 청담동 118-4 청부빌딩 2층	02-2088-2600
59기	이종성	호산에이스건설(주) 이사 /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314-15 일석빌딩 3층 303호	031-571-2530
59기	주병학	서울 마포 합정동 426-1 웰빙센터201호	02-337-5144
60기	강영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부장 /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지방행정회관 2층 회원서비스부	02)3781-0862
60기	김경규	LIG투자증권(주) 부사장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한진해운빌디 3층	02-6923-7200
60기	김성민	교보증권(주) 지점장 /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07-39 우석빌딩 3층 교보증권	02-521-9811
60기	박성진	(주)시스템서비스 대표이사 / 서울 영창동 240-21번지 우리 블루나인빌딩 B동 1909호	02)2636-2100

60기	이석주	(주)CONIC 대표이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5-7번지 제포빌딩 2층	02-557-8828
60기	이은현	VNV(주) 대표이사 /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10 401호	02)549-3790
60기	임응순	(주)큐머스 대표이사 / 서울 강서구 염창동 240-21 블루라인빌딩 B동 1909호	02-2093-3933
60기	진광엽	법무법인네모 변호사 /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8-74 정동빌딩 4층	02-2272-2323
60기	최원규	(주)세원메디 대표이사 / 서울 송파구 장지동 841-7 해오름빌딩 3층	02)407-9015
61기	김주환	(주)케이알 부회장 /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 2층	02-6309-5300
61기	신동범	(주)신우이노랩 대표이사 / 서울 송파구 오금동 32-2 신원빌딩 4층	02)424-5897
61기	이노종	SK텔레콤 부사장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0-4번지 대봉빌딩 3층 SK T CLUB	02-6240-5240
61기	이승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서울 중구 순화동 1-170번지 에이스타워 6층	02-316-4688
61기	이정희	(주)한얼공업 대표이사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628-11	031-358-0111
61기	이종대	(주)두산주류BG 상무 /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62-35번지 종이나라빌딩 2층	02-2265-7917
61기	조명현	(주)현대해운 대표이사 / 서울 종로구 계동 1402-2 현대사옥 2층	02)722-8000
61기	하근철	(주)체리스톤코리아, (주)현진건설 대표이사 /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24 우성캐릭터199오피스텔 2411호	02)566-8321
62기	고종오	(주)리바트 전무 / 서울 강남구 논현동 49-4 리바트 4층	02)3480-8005
62기	박상준	(주)이포텍 대표이사 / 서울 강남구 역삼동 234-8 석상빌딩 3층	02)594-3600
62기	박현만	한발로지스틱스팩(주) 대표이사 / 인천 동구 만석동 2-280	032)584-4506
62기	신동기	CJ(주) 부사장 /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CJ빌딩 14층 해외지사	02)726-8771
62기	신현철	KT Linkus 감사 /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16-46 삼구빌딩 7층	02)3780-7702
62기	임각균	이트너스(주) 대표이사 /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씨티 2동 2002호	02-3439-5018
62기	정희원	(주)네이쳐스팸 대표이사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02번지 춘의테크노파크 201동 703호	032-623-0217
63기	노재섭	(주)웰리브솔루션그룹 회장 / 서울 중구 저동2가 78번지 BIZ-CENTER 12층	02)2266-1994
63기	이상해	(주)태경월드어패럴 대표이사 / 서울 금천구 가산동 345-9 SK트윈테크타워 A동 605호	02)815-1124
63기	이창윤	대한생명보험(주) 상무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0번지 63빌딩 30층	02-789-7900
63기	이해석	교보정보통신(주)전무 / 서울 성북구 성북동 330-223호	02-708-6822
63기	장승훈	희재건설(주) 대표이사 /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509-11번지	052)258-6966
63기	장태연	전주MBC 사장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두평길 64번지	063-220-8000
63기	정인용	(주)CM태가코리아 사장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57-7 덕영빌딩 5층	02-522-1071
63기	최재진	인성종합건설(주) 사장 /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131-3 중앙프라자 B동 305호	032)437-7744
64기	김우찬	법무법인 렉스 변호사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3-5 오피런스빌딩 15층	02-6360-5132
64기	김종하	(주)LS전선 상무 /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26-6 LS타워 13층	02)2189-9085
64기	박종란	(주)인테리어 푸리 대표이사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5-2 분당클리닉 7층	031)719-0384
64기	손광호	(주)한국삼코크 상무이사 / 서울 강남구 역삼1동 823-30 라인빌딩 7층	02)571-4051
64기	송수진	도서출판 송 대표 / 서울 마포구 서교동 384-9 다솜빌딩 4층	02-518-7082
64기	이종탁	(주)디지털탑라인 대표이사 / 서울 강남구 개포동 1169-3 유성빌딩 3층	02-3462-7449
64기	정동하	(주)그랑비아 트레이딩 대표이사 /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32 현민타워 801호	02-569-6301~7
64기	조선행	(주)미주산업개발 사장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250-5 양호시네플렉스 4B단지 202호	031)913-1234
64기	홍대희	HMC투자증권 부사장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3	02-3787-2109
65기	손윤호	희망전자 대표 / 서울 금천구 가산동 470-5 에이스테크노타워 10차 610호	02-893-7291~5
65기	신용욱	(주)휴세코 부사장 / 서울 강남구 논현동 86-8번지 아이케슬빌딩 4층	02-6900-7613
65기	임광식	(주)컴덱스 시스템 대표이사 / 서울 마포구 아현동 738번지 마포트라플렉스 2차 211호	02-312-4700
65기	임성재	(주)두산전자BG 상무 / 서울 종로구 연지동 270 연강빌딩 2층	02-3670-8902
65기	최형진	STX 중공업 전무 /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81 서울시티타워 20층	02-310-2014
65기	한익준	(주)한성에이치앤씨 대표이사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01호	02-783-7746

Professional global Logistic partner 글로벌 복합물류 운송기업 |주|로얄디엔엘

|주|로얄디엔엘 은 신속하고 빠른 배송, 정확하고 안전한 서비스

체계적인 토탈 물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고의 물류 전문 인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Needs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Global 3PL service

통합 물류 관리 시스템 운용

door to door의 통합물류 관리체계 구축
E-service를 통한 실시간 물류 흐름정보 서비스

전문성과 노하우 확보

화종별 전문 컨설턴트 운영 /
다년간의 수출입 물량처리로 차별화된
운송 노하우 보유)

맞춤형 물류서비스 제공

고객사 맞춤형 최적의 거점 및 인프라 구축
원료조달, 생산, 판매, 전 과정에 대한 물류 서비스
항만 하역, 운송, 보관, 통관에 이르는 일괄 서비스



Total logistic service

3자물류(3PL) _ 항공& 해상 수출입 화물운송 주선
Transportation & Logistics _ 수출입통관 _ 보세창고(Bonded Warehouse)



고객을 위한
맞춤 서비스



물류운송의 차별화



IT infra 구축을 통한
업그레이드 서비스



체계화 및
전문화된 인력

ECO PIONEER

海
洋
解
法

(주)조양은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친환경선도기업입니다.

· 서해 폐기물처리회사로는 유일하게
자체 선박 접안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CHOYANG.co.Ltd

본점 : 인천시 중구 향동7가 82-1 (TEL:032-256-2525 FAX:032-256-2522)

서울사무실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77-9 메가벤처타워 301호 (TEL:02-2677-2600 FAX:02-2675-8999)

환경업체로는 최초로 ISO14001 인증업체 · 서해 폐기물처리회사로는 유일하게 자체 선박 접안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회사 : (주)한국E&P(환경방지시설업) / (주)조양그린(부동산임대개발) / (주)인천콘테이너(물류업, 창고) / (주)하이퍼D&C(평택호관광개발)